주체90(2000)년

6.15주간

6.15WEEKLY 제6호 (7월 26~8월 1일)



노작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재미교포 최덕신과 한 담화≫

특집 김정일장군님 러시아 방문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러시아 이따르타스통신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

6.15공동선언실현투쟁

- 2001 휴전선 평화통일 대행진
- 민주노총, 통일선봉대
- 대학생통일연대 통일학교
- 이북서 815대회준비
- 용산 기지앞서 반미평화시위

단죄규탄 조선일보반대

성명 조선일보반대

계획 연세대, 통일연대 통일대토론회

김일성주석의 서거 7돐을 세계적판도에서 기념

6.15주간 편집부

6.15주간

6.15WEEKLY

제5호 (7.26~8.1)

투고를 환영합니다

무릇 출판보도물의 변혁성과 대중성은 광범한 대중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담보됩니다.

또한 ≪6.15주간≫은 6.15공동실현을 위해 투쟁하는 애국청년들이 만드는 출판물입니다.

하여 우리 편집부는 그 취지에 맞게 애독자동지들의 글을 적극 게재하고자 합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용은 ≪6.15주간≫의 성격에 맞게 6.15공동선언실현과 관련지어 집필합니다.

– ≪6.15주간≫에 실리는 글들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6.15주간≫에 대한 의견, 비판도 좋습니다.

2. 수필, 편지, 논문, 시, 노래 등 형식은 자유입니다.

– 사진이나 그림, 악보도 환영합니다. 명의는 실명이든 가명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3. 분량은 A4용지 반페이지 내외로 합니다.

– 간결하고 명료할수록 바람직합니다. 논문의 경우, 분량제한이 없습니다.

4. 투고요령은 ≪6.15주간≫ 지난호에 답변(리플라이)하는 방법으로 통신공간에 올립니다.

– 주지하는 바 전자우편은 공안정보기관의 추적이 용이합니다. 답변하는 통신공간은 ≪전국연합 각종자료게시판≫, ≪민주노동당 기타자료실≫, ≪민족통신 자료게시판≫입니다. 반드시 프락시서버를 활용하기 바랍니다. ≪통일여명≫ 편집국에서 제작공개한 ≪인터넷 이용시 주의사항≫을 첨부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5. 채택된 원고는 다음호나 적절한 시기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문 그대로, 교정편집의 최소화가 원칙입니다.

6. 물론 원고료는 없습니다(?!).

– 6.15공동선언실현투쟁에 동참한 보람, 동지들과 글을 통해 호흡을 같이 한다는 기쁨, ≪6.15주간≫과 더불어 역사적으로 기록되는 영예가 있을 뿐입니다.

많은 애독자동지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6.15주간≫ 편집부
주체 90(2001)년 7월 15일
서울





재미교포 최덕신과 한 담화

주체67(1978)년 11월 18일

나는 최덕신선생이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조국을 찾아온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선생을 만나고 보니 의산 최동오선생이 생각납니다.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라고 선생의 모습이 최동오선생을 꼭 닮았습니다. 내가 선생은 이번에 처음 만나지만 최동오선생은 잘 압니다. 나는 1926년 6월에 화성의숙에 입학하여 숙장이었던 최동오선생한테서 배웠습니다. 나는 최동오선생을 매우 존경하였습니다. 내가 최동오선생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화전에 있을 때 선생의 집에 가서 식사도 몇끼 하였습니다. 최동오선생은 생활이 아주 검박하였고 인품이 너그러워 남에게 싫은 말을 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남에게 해되는 일은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최동오선생이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에서 일할 때 자주 만나 옛일도 회고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으며 선생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돌봐주느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최동오선생은 금강산에도 몇번 갔다왔고 휴양소에도 자주 다녔습니다.

최동오선생은 건강하였는데 1963년 9월에 뜻밖에도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최동오선생이 조국통일을 위하여 애를 많이 썼는데 통일도 되지 않고 하여 아마 여러가지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최동오선생은 4. 19인민봉기이후 남조선청년학생들이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라는 구호를 들고 일어났을 때 매우 흥분하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최동오선생에게 동아일보 , 경향신문 , 서울신문 을 비롯한 출판물과 남조선정세자료들을 늘 보내주었으며 또 최동오선생은 우리에게 참고될만한 자료들과 의견들을 내놓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박정희가 5. 16군사정변을 일으키고 대통령 자리에 올라앉았을 때 내가 최동오선생을 비롯하여 남조선에서 온 사람들에게 박정희가 어떤 사람인가고 물어보니 최동오선생은 그놈이 아주 무지막지한 놈이고 악질적인 반공분자이다, 이제는 조국통일이 매우 어렵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최동오선생이 박정희의 내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박정희가 대통령 자리에 올라앉은데 대해 대단히 분격해하였으며 사실 그때부터 실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후 최동오선생은 우리 사람들에게 아무래도 박정희가 통일하려는 것 같지 않은데 아무런 욕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그놈이 더 으쓱해서 남조선인민들을 기만하고 탄압할 수 있다는 것을 장군님께 말씀드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어느해에 내가 우리 나라를 방문한 일본 기자단을 만나준 일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우리를 토벌 하러 다니던 사람이 한명 있었습니다. 그가 지난날 토벌대 에 있었지만 현재는 기자로 활동하고 있고 또 우리한테 취재하러 왔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만나주었습니다. 그는 돌아가서 나쁜 글을 쓰지 않고 좋은 글을 썼습니다. 그는 일본사람들에게 자기가 그전에 백두산호랑이 를 제일 무서워하였는데 이번에 장군님을 만나보니 정말 위대한 분이시더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그때 그에게 박정희에 대해서 물어보니 그는 박정희를 쬐쬐한 놈이라고 하면서 어디에서 무슨 짓을 하였는지 자기는 알지도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박정희가 그런 보잘 것없는 존재였는데 지금은 권력을 틀어쥐고 파쇼독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정희가 대통령 의 자리에 올라앉은 다음 선생이 그밑에서 일하였지만 그때 형편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선생이 지난날의 일들을 다 씻어버리고 조국통일을 위해 일하여보겠다는 새로운 결심을 가진데 대하여 높이 평가합니다. 과거는 어디까지나 과거입니다. 나라가 통일이냐, 분열이냐 하는 기로에 놓인 이때에 우리는 서로 손을 잡고 조국통일을 위하여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단일민족이며 5천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슬기로운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은 누구도 갈라져 살 것을 원하지 않으며 독일처럼 갈라질 조건도 없습니다.

지난해 독일사회통일당 중앙위원회 총비서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는데 선생이 시간이 있으면 그때 내가 그를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한 연설을 읽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는 그 연설에서 독일은 강대국으로 남을 침략하려다가 패전한 전패국이다, 독일이 통일되는 것을 주변나라들은 두려워하며 좋아하지 않는다, 또 민주독일 사람들자체가 독일이 분열되어있을 것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독일과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는 침략전쟁에 참가한 나라도 아니고 패전국가도 아니며 우리 민족은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의 압제밑에서 피어린 민족해방투쟁을 벌여 자체로 독립을 쟁취한 민족으로서 둘로 갈라질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분열이 비록 외세에 의해 강요당한 것이지만 조선의 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해결해야 할 민족적 문제입니다. 우리는 민족자주적 입장에서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의 힘으로 나라를 통일하고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나라는 큰 나라들사이에 끼여있는 자연지리적 특성으로 하여 역사적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당해왔습니다. 지금도 일부 대국들이 우리 나라를 노리고 있는데 우리 민족이 다시는 대국들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되며 그러자면 민족자주적 입장을 철저히 견지하여야 합니다.

해방직후에 신의주에서 일부 학생들이 앞으로 북조선이 소련의 식민지로 될 것이라는 반동분자들의 악선전에 속아넘어가 소동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신의주에 내려가 학생들과 시민들 앞에서 연설을 하였는데 일부 사람들은 나에게 해방된 조선은 어디로 갈 것인가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해방된 조선은 민주주의적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미국식 민주주의도 아니고 소련식 민주주의도 아니다, 미국식 민주주의도 소련식 민주주의도 우리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새형의 민주주의, 조선식 민주주의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모였던 군중들은 **김일성**장군 만세! 를 목청껏 부르며 환성을 올렸습니다. 내가 소련사람들이 옆에 있는데서 우리는 미국식도 아니고 소련식도 아닌 조선식으로 민주주의적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여야 한다고 연설하였으니 물론 일부 소련사람들의 귀에 거슬리는 것도 있었겠지만 거기 모인 군중들은 모두 신심을 얻었습니다.

1948년 4월 평양에서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가 열렸는데 회의에는 김규식선생, 김구선생, 조소앙선생을 비롯하여 이름있는 사람들이 거의다 참가하였습니다. 최동오선생도 회의에 참가하였는데 그때 우리 집에서 식사도 함께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우리는 절대로 남의 장단에 놀지 말아야 하며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매워살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입장이다, 우리가 이조 때와 같이 사대주의를 하면서 남의 장단에 놀면 나라가 망한다, 우리는 사대주의를 반대배격하고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조국을 통일해야 하며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김규식선생도 우리는 절대로 남의 장단에 춤추지 말자고 하였습니다. 김규식선생은 여기에 와서 남의 장단에 놀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고 하면서 나는 미국에 가서 자랐기 때문에 미국사람들에 대하여 잘 안다, 미국사람들에게는 남을 지배하려는 사상이 많다, 남조선에 나가 사람들이 남의 장단에 놀지 않도록 설교하겠다, 여기는 **김일성**장군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남의 장단에 놀지 않으리라고 확신한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김규식선생과 손을 맞잡고 남의 장단에 춤을 추지 않겠다는 것을 맹약하자고 하였습니다. 김규식선생은 남조선에 나가 그대로 활동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김구선생도 그때 자기는 지금까지 공산주의자들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와보고 모든 것이 다 풀렸다, 장군님께서 연설하신 내용을 가지고 있는 힘껏 청년들을 일깨워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후 그들은 남조선에 나가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사대주의, 외세의존은 곧 망국의 길입니다. 더욱이 오늘 우리 나라가 처한 역사적, 자연지리적 환경은 우리 민족이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민족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기의 교훈을 잊지 말고 어떻게 하나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자면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에 관계

없이 민족의 단결문제를 내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민족을 내세워야 하며 언제나 민족을 우위에 놓고 민족의 이익에 기초하여 단결해야 합니다. 사상과 제도가 다르다고 하여 민족이 둘로 갈라질 수 없으며 통일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공산주의를 둘째로 치고 민족의 통일을 첫째로 삼습니다. 자기 민족이 없이 공산주의를 해서는 무엇하며 자기 민족이 없는 지상천국 을 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나는 일제를 반대하여 투쟁할 때에도 언제나 민족문제를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지금 한나라안에 공산당도 있고 사회당, 민주당도 있고 공화당도 있고 별의별 당들이 다 있는 나라들이 많은데 우리 나라에도 여러 당들이 다같이 있는 것은 나쁠 것이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혁신정당인물들이 큰 도시의 시장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안에 여러가지 사상과 신앙이 존재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현상입니다. 한나라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을 믿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공자를 따르고 어떤 사람들은 맑스를 신봉할 수 있습니다.

1972년에 북과 남의 고위급정치회담에 참가하기 위하여 남조선 중앙정보부 부장이 평양에 들어왔댔는데 내가 새벽 3시경에 그와 만났습니다. 그는 처음에 북과 남은 불상용적인 두 극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 민족안에 두 극이 있을 수 없다, 만일 우리가 남조선의 자본가들과 한 하늘아래서 살 수 없다고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든지 같이 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매판자본가는 반대하지만 민족자본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역사적으로 연설한 것을 선생이 보면 알 수 있지만 우리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내놓을 때에도 민족통일전선노선을 내세웠고 해방후에 발표한 20개조 정강에서도 개인수공업과 상업의 자유를 허용하고 장려한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었습니다. 우리가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를 가지고 두 극이라고 할 필요가 없다고 하자 남조선측 대표도 그에 대하여 긍정하였습니다.

내가 그때 조국통일을 위한 3대원칙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나라의 통일을 외국사람들의 힘에 의존하지 말고 자주적으로 실현하자는 것이며, 둘째로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는 것이며, 셋째로 나라의 통일을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말고 평화적으로 실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후락은 우리가 내놓은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자기네 대통령 도 찬성할 것이라고 하면서 냉수마시듯이 다 받아물었습니다.

내가 우리의 제2부수상을 대표로 남조선에 내보내면서 남조선측이 찬성하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오라고 공동성명문 초안까지 작성하여주었지만 박정희가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발표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후 얼마 지나서 남조선통치배들은 갑자기 공동성명을 발표하자고 제기하여왔습니다. 아마 미국사람들의 승인을 받느라고 기일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7.4공동성명을 발표한 다음 남조선통치배들은 유엔군 은 외세가 아니며 반공법 은 없앨 것이 아니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7. 4공동성명을 뒤집어놓았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공동성명이 발표된 다음해에 이른바 특별성명 을 발표하여 두개 조선 으로 유엔에 들어갈데 대한 문제를 공공연히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6월 23일 오전에 발표되었는데 나는 인차 그날 오후에 우리 나라를 방문한 체코슬로바키아대통령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 연설에서 우리 나라가 두개 조선 으로 갈라져서는 안된다는 것, 북과 남이 연방제를 실시하여 고려연방공화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유엔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우리 나라가 두개 조선 으로 유엔에 가입하면 나라가 둘로 갈라질 수 있습니다.

남조선집권자들의 민족분열책동에 의하여 북남대화는 실제상 파탄되게 되었습니다. 내가 공화국창건 30돌기념 중앙경축대회 보고에서도 지적하였지만 북남대화는 남조선당국자들이 민족적 양심을 가지고 진정으로 통일을 원해야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북남대화와 관련하여 한가지 사실을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7. 4공동성명을 발표한후 북남고위급회담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 온 남조선측 대표들을 만나 담화할 때 나는 그들이 남북공동성명을 당장 실현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먼저 북남경제합작이라도 하자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때 당신네는 지금 오스트렐리아, 인도 같은 먼 나라에 가서 철광석을 사오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북반부에 무진장한 철광석을 캐가라, 당신들은 노력을 대고 우리는 설비를 대어서 철광석을 개발하자고 하였습니다. 남조선에서는 광부 요, 간호원 이요 하면서 수많은 인민들과 여성들을 서독과 브라질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 팔아먹는데 그것은 민족적 양심으로 볼 때 도저히 허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북과 남이 경제적으로 합작하면 남조선의 실업자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남조선측 대표들에게 지금 남조선에서 새마을운동 을 한다고 하면서 일본에서 수지기와를 들여다 초가집지붕을 바꾸어잇는다는데 그렇게 해서는 농민들의 생활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농민들을 잘 살게 하자면 남조선농촌에서 관개공사를 해야 한다, 우리는 해방직후부터 관개공사를 많이 하였기 때문에 관개공사경험이 많다, 지금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에 가서 관개공사를 해주고 있는데 당신들이 요구하면 우리의 기술과 설비로 남조선 농촌에 관개공사를 무상으로 해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또한 그들에게 남조선어민들이 우리의 어장에 와서 고기를 잡게 하라, 겨울철에 명태떼가 밀려올 때는 몇백만톤씩 잡을 수 있는데 우리는 60만톤밖에 잡지 않는다, 남조선어민들이 우리의 어장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풍랑을 만나면 우리가 구조도 해줄 수 있다, 이런 것을 당신네 대통령 한테 가서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남조선측 대표들은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후 남조선당국자들은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 공동으로 금강산에 호텔이나 지어 경영하자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일본사람들을 금강산에 끌어들여 기생관광이나 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너무 입이 쓰거워 우리 사람들을 보고 욕을 해주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인간들한테서 무엇을 바라며 이런 인간들과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민족의 이익은 안중에 없이 오직 자기 개인의 이익과 돈밖에 모르는 자들과는 대화를 할 수 없으며 단결할 수도 없습니다. 민족적 양심이 없는 자들과는 마주 앉아야 의사가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조건에서 우리는 남조선의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대화를 하자고 합니다. 우리는 민족적 양심을 가지고 민족자주적 입장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복무하려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과거를 불문하고 손잡을 것이며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 재산의 유무에는 관계없이 같은 조선민족으로서 단결해나갈 것입니다.

선생이 여생을 조국통일사업에 헌신하며 미국에 돌아가서 재미교포들과 미국사람들에게 우리의 정당한 조국통일정책과 민족자주적 입장에 대하여 널리 해설선전하고 납득시키겠다고 하는데 나는 그것을 매우 필요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적극 지지합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민족자체의 힘으로 해결해야 할 민족내부문제일 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이 옳은 인식을 가지고 협력해야 할 국제적 문제입니다.

미국은 우리 민족분열의 장본인이며 지금도 남조선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지배하면서 조선의 통일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책임있는 당사국입니다. 미국당국자들이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에 대하여 옳은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정책에 매달리고 있는 것으로 하여 우리 민족의 통일에 커다란 장애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우리 당의 공명정대한 조국통일정책에 대하여 옳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사람들과의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생명으로 여기고 있는 우리는 절대로 남의 위성국으로 되지 않고 언제나 민족자주적 입장을 지킬 것이며 나라의 절반땅인 남조선을 남이 예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히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선민족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이념을 가지고 있지만 민족의 이익을 먼저 내세웁니다. 나는 혁명운동을 시작한 때로부터 언제나 그것을 철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덕신선생은 이에 대하여 잘 모를 수 있지만 최동오선생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초기혁명활동시기에도 공산주의운동을 한다고 하던 사람들이 고려공산당이요 무슨 공산당이요 하면서 감자도장을 새겨가지고 국제당에 승인받으려 다니는 것을 보고 조선사람이 조선혁명을 하는데 누가 승인하고 말고 할 것이 있는가고 비웃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위에 우리 식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웠으며 앞으로도 우리 식대로 나라를 건설해나갈 것입니다.

나는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나라 원료에 의거하고 우리 민족에게 복무하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조선의 애국자들이 인민들에게 민족의식을 배양하느라고 토목두루마기를 입고 다니는 운동을 하였습니다. 최동오선생도 토목두루마기를 입고 다니던 이야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것은 물론 적극적인 투쟁은 못되지만 투쟁형식은 좋았습니다. 해방후 우리 북반부에 큰 방직공장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청년들에게 무명을 짜서 옷을 만들어 입고 다니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날론천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질좋은 천을 자체로 생산하여 좋은 옷을 해입고 있습니다. 비날론은 이승기박사가 해방전에 일본에 있을 때부터 연구한 것입니다. 그가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쓴 비날론에 대한 연구논문이 베를린도서관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는 해방후 남조선으로 갔는데 남조선집권자들은 그에게 과학연구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에게 장군님의 품속에서 민족을 위해 복무하겠으니 받아달라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되어 그는 북반부에 들어오게 되었으며 나는 전쟁시기에도 압록강연안에 연구소를 지어놓고 그가 연구사업을 계속하도록 하였습니다. 전후에 나는 이승기박사를 만나 연구결과를 알아보고 함흥에다 비날론공장을 짓도록 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는 과학원 함흥분원 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다른 나라 대표단들은 2. 8비날론공장을 돌아보고는 몹시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승기박사를 좋아하고 높이 평가하는 것은 그가 우리 나라에 무진장한 석회석과 무연탄을 가지고 비날론을 만들어내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았는데 공업을 주체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료를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것은 그 나라들과 관계가 좋을 때에는 일없지만 관계가 나빠지면 목덜미를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원료를 남에게 의존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전에 일부 사람들은 원유화학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익하다고 하면서 우리 나라에서도 원유화학공업을 건설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원유화학공업을 건설하는 것이 좋기는 좋다, 그러나 원유가 나오지 않는 우리 나라에서 원유화학공업을 건설하였다가 무슨 일이 생겨 원유를 들여오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는가, 원유화학공업은 우리 나라에서 원유가 나올 때 건설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후 세계적으로 연료위기가 조성되어 원유값이 올라가고 미국, 일본, 서부독일을 비롯한 거의 모든 나라들이 불경기로 아우성을 치게 되자 그들이 나에게 수령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수령님의 말씀대로 주체공업을 세우지 않았더라면 다 망할 번하였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경제에서 주체화방침을 관철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나라가 큰 나라들에 경제적으로 예속될 수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유값이 아무리 올라가도 우리에게는 나라의 화학공업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석탄과 석회석이 몇백년 캐먹을 수 있을만큼 무진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 민족의 것을 사랑합니다. 선생이 앞으로 자주 오면 알 수 있겠지만 우리 상점들에 가보면 우리 나라에서 생산한 상품들이 가득차있습니다. 나는 학생운동을 할 때에 일본상품배척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일본상품을 송화강에 처넣군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다른 나라 상품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만들지 못하는 일부 설비들을 다른 나라에서 사오고 있지만 인민들의 소비상품은 다 우리 나라에서 자체로 생산한 것입니다. 조선속담에 아이는 제 아이가 곱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만든 상품이 질은 좀 낮아도 제 손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기 나라의 것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지금 아시아, 아프리카를 비롯한 많은 나라 사람들이 우리 나라에 와보고 왜 찬양하는지 압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외국식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노래하는 것을 보나 말하는 것을 보나 그 무엇을 보나 러시아식, 중국식이 전혀 없고 다 우리 식입니다.

일부 나라 사람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나라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서 자기 나라에 대한 글을 내달라고 해도 내주지 않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돈을 주지 않아도 우리에 대한 좋은 글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신문에는 우리에 대한 글이 나가지 않는 때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에 대한 글을 내달라고 줄 돈도 없거니와 그 사람들을 돈으로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한 글을 내는 것은 다 사상적 공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주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조선사회는 일본화, 서양화되어 사람들이 조선말과 일본말, 서양말을 마구 섞어쓰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조선민족의 민족성을 고수하고 살려나가야 합니다. 지난 시기 우리 나라의 봉건통치배들이 사대주의를 하다보니 조선사람들이 민족성을 지키지 못하고 외국에 동화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얼마전에 총련의 한덕수의장이 조국에 왔을 때 나는 그에게 우리 동포들이 비록 몸은 일본에 있어도 동화되어 일본사람이 되지 말고 조선의 넋을 가진 조선사람이 되게 해야 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들을 민족적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도록 교양하고 있으며 이런 면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민족자주정신으로 교양받은 우리 후대들은 앞으로 그 어디에 내놓아도 다른 나라 사람으로 동화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나라 사람들의 앞잡이노릇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통일이 되어도 절대로 남의 지휘봉에 따라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우리 식대로 살아나갈 것입니다. 우리 조선은 앞으로도 그 어느 나라의 위성국으로 되지 않고 중립적이며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될 것입니다.

미국지배층의 견해를 바로잡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또한 미국사람들이 우리 인민과 철천지 원수가 될 필요가 없고 우리 나라를 분열시키는 것이 미국인민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는 것을 옳게 인식하고 조선의 통일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미국에 대하여 적대국이라는 인상을 가지지 않고 조미관계를 우호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어제는 어제이고 오늘은 오늘인 것만큼 미국이 지난날 우리와 전쟁을 했다고 하여 영원히 우리의 적대국으로 되어야 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만일 미국이 우리 나라를 두개 조선≫으로 만들고 남조선을 예속국으로 틀어쥐고 있으려 하지 않으며 조선이 통일되는 것을 바란다면 우리는 미국과 틀릴 조건이 없으며 미국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가지고 우호적으로 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우리 나라를 영원히 두개 조선 으로 만들어 분단국가로 유지해나가려는 정책을 실시한다면 우리는 미국을 반대하여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카터가 미국대통령으로 올라앉은 다음 1년반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카터가 선거공약에서 남조선에 있는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하였고 또 대통령자리에 올라앉자마자 우리 나라에 대한 내왕도 허락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자기가 한 말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하는 것을 주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후 미국은 남조선에 비행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현대적 군사장비를 더 많이 끌어들였으며 원조 도 계속 주었습니다. 카터는 서거공약 에서 인권탄압을 반대한다고 하였으나 남조선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는 박정희군사파쇼독재정권을 계속 비호하였습니다. 카터가 다른 나라에서의 인권탄압 에 대하여서는 떠들면서 남조선당국자들의 인권탄압에 대해서는 눈감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거짓말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군의 비—52 전략폭격기가 남조선에 와서 폭격연습을 하는데 대해서도 한동안 가만있다가 올해에 미국과 남조선이 한미연합작전훈련 을 한 다음에야 철군 을 한다고 하면서 한미연합작전훈련 이 무엇인가, 이것은 미국이 남조선을 강점한 이래 처음 있은

대군사연습이라고 떠렸습니다. 미국에서 카터가 대통령으로 올라앉은후 일본 오끼나와에 있는 비—52 전략폭격기가 항로연습을 한다는 구실밑에 한달에 1~2번씩 남조선에 와서 폭격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도 군인출신인 것만큼 잘 알고 있겠지만 최신과학기술로 장비된 현대적 비행기가 항로연습을 한다는 것은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거짓에 불과합니다. 오끼나와에 있는 폭격기가 폭격연습할 곳은 오끼나와비행장 근방에도 많은데 무엇 때문에 남조선의 아산만에 와서 폭격연습을 하겠습니까. 전번에 내가 일본잡지 세까이 편집국장에게도 이야기하였지만 이것은 남조선사람들에게 현 정권 을 반대하여 들고 일어나면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남조선인민들을 위협하자는 것이며 또 우리도 위협하자는 것입니다.

미국은 남조선사람들이 박정희독재 정권 을 반대하여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위협하지만 그 어떤 책동으로써도 결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남조선의 수많은 청년학생들이 파쇼독재를 반대하여 용감하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압박이 있으면 반항이 있고 반항이 있으면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역사의 법칙입니다. 과거 봉건사회가 이 법칙에 의하여 무너졌고 자본주의가 이 법칙에 의하여 망해가고 있으며 여러 나라들에서 이 법칙에 따라 혁명투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파쇼가 심하던 에스파냐에서도 인민들이 투쟁한 결과 파쇼독재체제가 무너졌습니다.

미국이 남조선괴뢰들에게 무기를 많이 대주어 우리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보자고 하는 것 같은데 무기가 많은가 적은가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무기를 대준다고 하여도 인민들을 탄압하는 정책을 쓰고서는 견디지 못합니다. 남조선은 부익부, 빈익빈 의 사회이기 때문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조선경제가 고도성장 을 한다고 하여도 자본가들 몇몇 사람이나 잘 살 수 있지 노동자, 농민들은 잘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본데 의하면 서울에는 이틀에 밥을 한끼씩 먹는 사람, 하루에 밥을 한끼씩 먹는 사람이 인구의 20%가 넘는다고 합니다.

미국이 남조선군사독재자들을 비호하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는 조선사람들을 억누르지 못할 것이며 계속 그렇게 하다가는 이제 되게 얻어맞을 수 있습니다. 미국사람들이 지난 시기에 있은 조선농민폭동과 3. 1운동, 광주학생사건, 4. 19인민봉기에 대해 똑똑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민족은 5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민족적 자부심이 높습니다. 조선민족은 슬기로운 민족입니다.

미국이 계속 그렇게 우둔한 정책을 쓰다가 남조선에서 되게 얻어맞기보다는 지금 점잖게 남조선에서 손을 떼고 조선사람들끼리 통일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남조선에서 인권탄압을 못하게 하고 각 정당, 사회단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남조선의 민주인사들이 민주주의적 정부를 세우고 조선사람들끼리 서로 대화하여 평화적으로 나라를 통일하게 하면 미국에도 나쁠 것이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미국에 대한 인식을 좋게 가지고 미국과 우호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미국이 시대착오적인 두개 조선 정책을 그만두고 조선의 통일을 도와주는 입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일부 미국사람들이 북과 남의 세력균형 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미군이 남조선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사람들도 남조선을 계속 붙들고 앉아있어야 큰 이득이 없고 남조선통치배들이 자꾸 돈만 달라고 하며 또 잘못하다가는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 죽음밖에 차례질 것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남조선에서 손을 떼자는 생각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당국자들은 미국이 남조선에서 손을 떼면 북조선이 남조선을 내치고 공산주의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남조선괴뢰들도 계속 그렇게 악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조선에 미국장관들이 자주 드나드는데 박정희는 그들에게 돈도 찔러주고 기생들도 붙여주면서 미군이 남조선에서 철거하여서는 안된다고 애걸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에게 매수당한 그들은 돌아가서 남조선에 가보니 남침위협 이 있다고 요란하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남침 할 의사가 있었다면 왜 4. 19인민봉기 때같이 남조선정세가 복잡할 때 가만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시종일관 남침할 의사가 없으며 남조선에 공산주의를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도 계속 남침위협 을 떠드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우리 민족은 두번다시 동족간의 유혈전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50년대에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일으킨 전쟁으로 하여 우리나라가 무참히 파괴되었으며 우리는 전후 재더미속에서 오늘과 같은 훌륭한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다시 전쟁에 의하여 파괴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제의 야수적 만행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빈터위에 우리 인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피땀흘려 건설해놓은 튼튼한 자립적 민족경제,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장 훌륭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합니다.

북남적십자회담때 남조선에서 들어온 사람가운데 평양 보통강의 토성랑에서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옛날 자기네 집이 있던 자리에 가보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도록 하였는데 천리마거리와 보통강주변에 멋있게 꾸려진 공원을 보고는 대단히 놀라더라고 합니다. 후에 안 일이지만 그가 홍콩에 가서 어떤 사람과 담화하면서 평양이라는 영화를 남조선사람들에게 보였다가는 큰일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는 현대적으로 잘 건설된 평양을 찍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화를 남조선에서 돌리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남조선측이 북남회담을 계속 지연시키다가 마지막에는 판문점에서 하자고 하였는데 그것은 북과 남이 내왕을 하면서 회담을 하면 남조선사람들이 우리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북남적십자회담때 북반부에 들어오는 남조선기자들을 보면 매번 다른 기자들이었습니다. 한번 북반부에 왔다가면 얼마나 오염 되었는가 하여 남조선중앙정보부 에서 검열하는데 아마 조금씩 문제가 있은 것 같습니다.

북남적십자회담때 북반부에 들어와왔던 남조선기자들은 북에도 거지아이들이 많은가 하여 만년필과 학습장을 가지고 와서 우리 학생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은 우리에게는 연필이 많으니 이따위것은 필요없다, 이것을 남조선에서 구두닦기하는 아이들에게나 갖다주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그것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학생들의 행동에서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적십자대표들이 남조선에 나가 어느 호텔에 들었는데 보이라고 부르는, 호텔에서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구두도 닦아주겠다고 하고 옷도 다려주겠다고 하고 목욕할 때에도 들어와 봉사해주겠다고 하고 별의별 일을 다해주겠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그에 대하여 감사하다고 하고는 자체로 모든 것을 하였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런 것을 누구에게 시킬 줄도 모릅니다.

남조선호텔에서 심부름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우리 사람들이 돈이 없어 돈을 아끼느라고 그렇게 하는줄 알았는데 우리 사람들이 봉사를 받지 않고도 봉사료를 다 주자 매우 감탄하더라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부려먹지 않는 사상으로 교양받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후에 심부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소문이 서울의 여러 호텔들에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북조선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인줄 알았는데 행동하는 것을 보니 사람들이 술을 먹고 추태를 부리지 않으며 다 인자하다, 우리같이 천한 사람들도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는데 그이상 점잖은 사람들이 없더라고 하였습니다.

서울에는 구두닦기를 하고 담배를 파는 아이들이 대단히 많다고 하며 남대문시장에는 지게꾼이 요란하다고 합니다. 남조선에서 온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남조선통치배들은 북남적십자회담때 서울에 있는 거지들을 다 어느 섬에 갖다 건어넣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민들이 물론 구라파의 일부 발전된 나라 사람들처럼 잘 산다고는 볼 수 없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나라에 와보고는 다 놀랍니다. 조선에는 특별히 잘입고 잘사는 사람이 없지만 못사는 사람도 없다, 지게꾼도 없고 구두닦기를 하거나 담배를 파는 아이들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나라에는 돈을 달라고 구걸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고아들을 다 학원에 보내어 부모가 데리고 있을 때보다 더 잘 먹이고 더 잘 입히면서 잘 교육교양하여 나라의 훌륭한 역군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민족적 의무로 여깁니다.

우리 나라를 방문한 많은 사람들이 식당에 가보아도 접대원들과 손님들이 다 점잖고 영화내용도 다 훌륭하며 텔레비전에도 다 건전한 내용만 소개된다, 사회도덕이 아주 건전하다고 탄복하면서 좋게 평가합니다. 반면에 일부 사람들은 조선에 가보니 카페도 없고 재즈춤 추는 곳도 없더라고 하는데 우리는 미국의 본을 따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청년들을 타락시키는 마약입니다. 미국사람들도 아마 미국사회가 부패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미국의 본을 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카페나 재즈춤을 추는 장소대신에 극장과 영화관을 더 많이 짓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극장과 영화관이 없는데가 없으며 농촌리까지 다 구락부가 꾸려져있습니다. 이런 것이 많아야 청년들이 영화도 보고 예술소조활동 같은 것도 하면서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 청년들은 정치사상적으로, 문화도덕적으로 매우 건전하며 사회주의건설의 돌격대로서 한몫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에 있는 조선동포들가운데 구두닦기를 하고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못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거의 10만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조국에 데려왔습니다.

나는 일본에서 귀국한 사람들의 집에도 가보군하는데 그 집 아주머니들 보고 조국에서의 생활이 어떤가고 물으면 그들은 일본에 있을 때에는 남편이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와 못살게 굴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빠찡꼬 같은 것을 하여 돈을 좀 벌가 하면 투전을 하여 다 잃어버리고는 여자들의 가락지까지 빼갔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벌써 우리 남편이 교양개조되었습니다, 이 이상 더 좋은 제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아이들이 조국에 와서 교양된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일본사람이 될번하였는데 조국에 와서 우리 나라 말과 글을 배우고 우리 나라 역사를 배우니 다 조선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잘살고 누구나 근심걱정이 없이 행복을 누리는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건설하여놓았는데 민족끼리 싸울 필요가 어디에 있으며 구태여 남조선을 공산주의화해서는 무엇하겠습니까. 우리는 통일이 되어도 남조선의 자본가들을 해치지 않을 것이며 남조선에 공산주의를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적이고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려고 합니다.

전략적 의미로 보아서도 이제는 미국이 남조선을 포기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의 군사분계선을 반공방파제 라고 하면서 공산주의세력이 부산까지 나오면 일본이 큰일 난다고 떠벌이고 있습니다. 지어 일본공명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인물들도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반동들은 조선이 분열되어 조선사람끼리 싸우게 함으로써 어부지리를 얻자고 합니다. 일본반동들은 남조선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통제하면서 조선을 통째로 다 먹지는 못해도 절반땅이라도 먹어보자는 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일본을 추켜세워야 아시아에서 사회주의나라들을 견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있는 조건에서 미국이 남조선을 군사기지로 가질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미국이 남조선을 군사기지로 이용할 가치가 없어졌으며 자체의 전략적 견지에서 볼 때 남조선에서 손을 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남조선을 군사기지로 이용할 필요가 없는 이상에는 남조선을 계속 틀어쥐고 있을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조선사람들자체가 조선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미국, 일본, 소련과 중국을 다 반대하지 않는 중립적인 정책을 실시하면 누구에게나 다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하나의 통일국가로 독립한다고 하여도 미국과 주변나라들을 위협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미국과 주변나라들에 손해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최근에 미국사람들, 특히 기자들이 우리 나라에 오겠다고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과 같이 두개 조선 정책을 쓰고 있는 조건에서는 그들을 받아들이기 곤난합니다. 그전에 미국 뉴욕타임스 기자 솔스베리가 우리 나라에 왔다간 일이 있습니다. 그가 어느 공장에 가서 한 노동자를 만났는데 그는 남조선출신이였습니다. 솔스베리가 그에게 당신은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는가, 나는 미국기자다, 무슨 할 말이 없는가고 하였습니다. 그 노동자는 당신이 미국기자인가, 나는 미국놈이라면 적개심이 북받친다, 미군이 왜 남조선에 있으면서 나가지 않는가, 미군이 남조선에 들어와있기 때문에 내가 고향을 떠난지 20년이 되어와도 고향에 소식 한번 전하지 못한다, 저 그림을 보라, 나의 생각은 저 그림과 같다, 미국사람들에게 가서 이것을 전하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그림은 미군 나가라는 구호가 있는 만화였습니다. 솔스베리는 남자들과 말해보아서는 재미없겠다고 생각하고 한 여성 노동자에게 갔습니다. 솔스베리는 그 여성 노동자에게 나는 미국기자인데 무슨 할 말이 없는가고 하자 그는 나는 미국놈들의 폭격에 부모를 다 잃고 고아가 되었다, 미국놈들은 나의 철천지원수이다, 미국놈들이 남조선에서 물러갈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솔스베리의 감정이 좋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일군들에게 우리가 미국사람이나 기자들을 받아도 미국사람들이 남조선에서 나가겠다고 하고 조선의 통일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실시하여 조미관계가 좀 나아졌다고 할 때 우리 사람들을 교양해서 미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게 한 다음에 받아야 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지금 형편에서는 우리 조선사람들이 미국사람들을 만나면 감정이 좋을 수 없습니다. 미군이 남조선에서 나가지 않는 조건에서는 우리가 미군 나가라는 구호를 써붙이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 인민들의 반미감정이 없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미국기자들이 우리 나라에 와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며 북조선에 가보니 반미일색이더라고 글을 쓰게 될 것은 뻔합니다.

미국은 우리 나라의 현실을 바로 보고 이성적으로 사고하여야 하며 하루빨리 그릇된 대조선정책을 시정하고 조선의 통일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미국을 좋은 벗으로 생각하고 우호적으로 대하게 될 것이며 미국과의 관계가 좋게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미국사람들가운데 조선의 현실을 바로 보고 이성적으로 사고하려는 사람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만일 그런 사람들이 오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받으려고 합니다. 미국사람들이 우리 나라를 폐쇄된 나라 라고 자꾸 헐뜯는데 우리 나라에 와서 한번 보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나라의 현실도 보이고 조국통일문제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을 비롯하여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해주려고 합니다. 미국사람들도 윌슨의 시대에 민족자결론 이요 뭐요 하면서 많이 부르짖었는데 왜 남의 나라의 자결권을 짓밟으려고 하는가, 왜 남조선군사파쑈독재자들을 내세워 남조선인민들을 탄압하게 하는가, 남조선인민들을 계속 탄압하고 민족의 영구분열을 추구하는 자들과 우리가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겠는가, 민족적 양심을 가지고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는 사람이 집권한다면 그가 누구든 사상과 정견을 초월하여 대화하고 손잡을 것이라고 말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이 통일된다면 그 어느 나라의 위성국으로도 되지 않고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미국과도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미국에도 이로울 것이라는데 대하여 이야기해주려고 합니다.

선생이 미국에 돌아가서 우리의 이러한 입장에 대하여 잘 해설하면 미국사람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조국통일위업에 큰 도움으로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여 반드시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통일하지 않으면 누가 통일하겠습니까.

나는 오늘 최동오선생을 만난 심정에서 선생에게 조국통일문제와 관련한 우리 당의 입장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는데 앞으로 조국통일을 위하여 함께 손잡고 투쟁해나갑시다.

나는 선생이 미국에 돌아가서도 자기 조국을 굳게 믿고 어떻게 하나 우리 민족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힘껏 노력하기 바랍니다.

특집 김정일장군님 러시아 방문

김정일장군님께서 로씨야 공식방문의 길에 오르시였다

모스크바에서 뿌찐대통령과 회담



러시아행 기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로씨야련방 웨.웨.뿌찐대통령의 초청에 의하여 로씨야련방에 대한 공식방문의 길에 오르시였다.

조로관계는 지난해 7월 평양에서 있은 **김정일**장군님과 뿌찐대통령의 상봉과 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두 나라 지도자들이 서명한 조로공동선언(2000.7.19)은 지난해 2월에 조인된 ≪조로사이의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에 따라 다방면적인 협조와 밀접한 호상협력을 가일층 발전시켜 나갈것을 명기하였다.

또한 두 나라 지도자들은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여 민족의 자주적인 노력으로 조선의 통일을 실현할데 대하여 견해의 일치를 보았으며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에 기초하여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 안정을 위해 공동보조를 취해 나갈 서로의 립장을 확인하였다.

이번에 모스크바에서 진행되게 될 **김정일**장군님과 뿌찐대통령사이의 회담에서는 조로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쌍무관계문제와 조선의 통일문제를 비롯한 지역정세, 호상 관심사로 되는 국제문제들에 대한 의견이 교환될것이다.

모스크바에서 1년만에 이루어 지는 조로 두 나라 지도자들의 회담은 국제정치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는 사변으로 된다.

조로공동선언발표 1돐에 즈음하여 ≪로동신문≫(19일부)이 게재한 론설은 ≪요격미싸일제한조약≫을 유지할데 대한 립장을 견지하면서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 창설을 반대하는 등 로씨야가 일련의 중요한 국제문제들에 대하여 원칙적립장을 견지하고 있는것을 조선이 ≪주시, 평가하고 있다≫고 썼다.

현재 국제무대에서는 1극화세계수립을 강행하려는 미국과 세계의 다극화를 지향하는 로씨야, 중국 등 주요나라들사이에 새로운 대립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는 6.15북남공동선언의 리행과 조선의 통일과정에 장애를 조성하고 조선반도에 새로운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조로 두 나라 지도자들의 회담에서는 지난 1년동안 국제무대에서 일어 난 정세변화에 주동적으로 대처하여 조로공동선언에 명기된 ≪새로운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조선과 로씨야의 역할문제도 심도 있게 론의될것으로 보인다.

[조선신보 01/7/27]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러시아 이따르타스통신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

주체 90 (2001)년 7월 24일

이따르타스통신사에서 나에게 인터뷰를 제기한데 대하여 사의를 표합니다.

당신들이 제기한 질문들에 대답하려고 합니다.

먼저 조러 두 나라 사이의 관계와 그 발전전망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조선과 러시아는 국경을 접한 이웃나라이며 조러관계는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적인 친선관계입니다. 조러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조선과 러시아 두 나라 인민들의 이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우리는 조러친선을 귀중히 여기며 두 나라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 있은 우리 두 나라 지도자들의 평양상봉은 조러친선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인 사변이였습니다.

블라지미르 블라지미르비치 뿌찐대통령 러시아 국가수반으로써 처음으로 우리 나라를 방문한 것은 조러 두 나라 관계발전에 커다란 기여로 되었으며 우리는 이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때 블라디미르 뿌찐대통령과의 상봉에서 우리의 친선협조관계를 새롭게 발전시키려는 공통된 의지와 입장으로 하여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으며 호상 이해와 신뢰를 두터이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회담과 담화들에서 쌍무관계 문제와 서로의 관심사로 되는 독재문제들에 대하여 지탄없이 의견을 나누었으며 회담결과에 따라 조러친선협조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려는 우리 두 나라 정부와 인민들의 공통된 의지와 지향을 내외에 선포하고 중요한 국제문제들에 대한 우리들의 일치한 견해와 입장을 천명하는 조러공동선언을 채택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조러공동선언과 지난해 2월에 체결된 조러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은 조러친선관계의 발전을 담보하는 역사적인 문건입니다.

선언과 조약에는 조러친선협조관계의 원칙과 발전방향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며 정치와 대외관계, 국방과 안전, 쌍무적인 경제협조와 무역을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두 나라 관계발전과 관

련한 모든 문제들이 포괄적으로 다 밝혀져 있습니다.

조러공동선언과 조러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에 의하여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 호상신뢰와 내정불간섭의 원칙에서 모든 분야에 걸쳐 강화발전되게 되었습니다.

조러친선관계의 발전전망은 매우 좋습니다. 평양상봉이후 두 나라의 광범한 사회계와 인민들속에서는 조러친선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열의가 전례없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동선언과 조약의 정신에 따라 지금 우리 두 나라 사이에 경제와 군사, 과학예술, 교육, 문화의 여러 분야에서 협조와 관련한 실천적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조선과 러시아는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쌍방의 의지가 확고하고 그것을 담보하는 공동선언과 조약이 있고 수십년간 상호 긴밀히 협조한 전통도 있는 것만큼 적극적인 행동조치들을 취한다면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전면적으로 확대발전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 나라 정부와 인민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조러친선협조관계가 새 세기, 21세기에 훌륭히 발전될 것을 믿습니다.

국가지도자들 사이의 대화는 나라들사이의 관계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도자들 사이의 관계가 두터우면 나라들 사이, 인민들 사이 친선관계가 좋게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뿌찐 대통령의 초청에 의하여 이제 곧 러시아를 방문하게 됩니다. 러시아를 방문하여 모스크바에서 뿌찐대통령과 다시 만나는 것은 기쁜 일이며 친선적인 러시아 인민들과 상봉하면 나에게 커다란 감회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들의 당연한 모스크바상봉이 지난해 평양상봉에서 이루어진 두 나라 지도자들 사이의 관계를 두터이하고 조러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키는 새로운 중요한 계기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수립문제에 대하여서는 이 문제가 미국이 우리를 걸고드는 문제이기도 하므로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우리 나라를 비롯한 일부 나라들에 그 무슨 미사일위협을 들고 나오면서 미사일방위체계를 세우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러시아와 맺은 요격미사일제한조약을 파기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수립시도는 새로운 군비경쟁을 초래할수 있는 것으로하여 오늘 세계적인 비난의 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격미사일제한조약을 통하여 전략적 안정을 유지할데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미국이 우리 나라의 미사일위협에 대하여 떠드는 것은 완전한 무근거한 것이며 저들의 지배주의적 속심을 가리우기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북조선이 마시일로 미국을 위협하며 그로하여 미국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고 아무리 떠들어야 그것을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더욱이 미국의 새행정부가 북조선의 미사일위협에 대하여 떠들다 못해 이제는 우리의 상용무력의 위협까지 들고 나온 것은 언어도단이며 우리에 대한 또하나의 횡포한 도전입니다.

우리의 미사일강령은 순수 평화적 성격을 띤 것이며 그 누구도 위협하지 않습니다. 평화적인 미사일강령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의 당당한 자주적 권리입니다. 우리가 미국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우리 나라의 절반땅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우리를 항시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아는 사실입니다.

당신들은 또한 우리 나라와 미국, 일본과의 관계정상화의 전망에 대하여 물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미국, 일본의 입장과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의 새행정부는 이미 20세기에 파산당한 대조선고립압살정책을 새 세기에 또다시 들고나와 조미관계개선의 길을 가로막고 정세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이 강경으로 우리에게 그 어떤 압력을 가하려고 하는 것은 어제도 오늘도 통할수 없는 헛된 시도입니다.

선의에는 선의로 대하고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응하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입니다. 우리의 자주정치, 우리의 자주적 대외정책은 일관하며 확고부동합니다.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그 어떤 도전에 부닥치건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킬 것이며 자신이 선택한 길로 확신성있게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성의 호상존중에 기초하여 세계 모든 나라들과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우리와 적대관계에 있던 나라라도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버린다면 관계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일본이 지난시기 우리 나라와 우리 민중에게 끼친 죄행을 깨끗이 청산하는 문제가 기본입니다. 죄많은 과거를 덮어두고서는 관계개선이란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의 반동적 지배층은 저들의 불미스러운 과거를 도리어 미화분식하고 정당화하며 그것을 영영 묻어버리려고 분별없이 책동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대세의 흐름을 바로 보고 과거청산문제에 대하여 성근한 입장과 태도로 나오며 우리 나라에 대한 적대시정책과 적대행위를 그만둔다면 조일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개선할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당신들은 내가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며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털어놓고 말하여 나에게는 하여야할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생전의 뜻을 받들어 조국땅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해야하며 하루빨리 조국통일을 실현해야 합니다.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전에는 시간을 낭비할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취미에 대하여 말한다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인민들과 군인들 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민들과 군인들이 어떻게 일하고 생활하는가를 알아도 보고 돌보아도 주며 그들과 어울려 이야기도 나누고 고락을 같이 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보람이고 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읽기와 음악을 좋아하는데 나에게 있어서 책과 음악은 우리 사업의 양식이며 생활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러시아 인민에게 친선의 인사를 보내며 강력한 러시아와 훌륭한 생활을 건설하기 위한 러시아인민의 투쟁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김정일장군님 하산 도착
8월 4~5일 푸틴과 회담

러시아방문에 나선 북한의 **김정일**장군님께서 26일 오전 국경을 통과, 러시아에 입국했으며 다음달 4일과 5일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대통령과 회담을 갖는다.

김정일장군님께서 북한의 최고권력자가 된 이후 3번째 해외 나들이이자 첫 러시아행이 되는 이번 방문을 통해 **김정일**장군님은 푸틴대통령과 시베리아횡단철도의 한반도연결 등 양국간 경제, 군사협력 강화방안과 한반도정세 등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타르타스와 인테르팍스통신 등 러시아언론들은 이날 오전 8시 15분께 **김정일**장군님 일행을 태운 특별열차가 북-러 국경도시인 하산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으며 때맞춰 북한과 러시아 당국도 **김정일**장군님의 러시아방문을 공식 발표했다.

하산역에서 콘스탄틴 풀리코프스키 러시아극동연방지구 대통령전권대리인으로부터 영접을 받은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 경유지인 하바로프스크를 거쳐 시베리아횡단철도를 통해 모스크바로 향할 예정이라고 러시아언론들은 전했다.

이타르타스통신은 **김정일**장군님의 모스크바행에 풀리코프스키 전권대리인이 동행할 예정이라고 전하고 김정일장군님께서 이번 러시아방문을 통해 모스크바 이외에도 여러 도시를 방문할 예정이지만 극동지역의 블라디보스토크는 방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의 조선중앙방송과 러시아대통령궁(크렘린)은 **김정일**장군님께서 푸틴대통령의 초청으로 러시아를 공식방문한다고 발표했으나 자세한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러시아언론들은 **김정일**장군님께서 시베리아횡단철도편으로 여행을 계속해 다음달 3일 또는 4일 모스크바에 도착한 뒤 4, 5일 이틀간 푸틴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푸틴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시베리아횡단철도의 한반도 연결문제 이외에 북한의 대러시아 채무재조정 및 상환일정, 러시아의 대북한 군사원조 등 양국간현안과 한반도정세 등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스크바의 고위소식통은 타스통신을 통해 ≪북한의 로켓이 미국에 실질적인 위협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방문중 미사일방어문제가 주된 의제는 되지 않을 것≫라고 밝혔다.

일본의 교도통신도 두 정상이 양국 현안과 한반도안보 등에 초점을 맞추겠지만 북한의 미사일 개발문제는 논의의 초점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금까지 알려진대로 **김정일**장군님께서 모스크바행에 열차만을 이용할 경우 왕복 15일 정도의 긴 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구소련이 당시 **김일성**(金日成)주석님의 방문을 기념해 지어준 ≪우정의 집≫도 들를 예정이며 특별열차편으로 이동하면서 중간에 일부도시에서 1박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국정부의 한 관계자가 밝혔다.

러시아의 인터넷사이트 프레스센터 닷러(Presscenter.ru)는 17개의 객차를 달고 있는 **김정일**장군님의 특별열차가 모스크바까지 직행할 예정이며 **김정일**장군님의 이번 러시아 방문길에는 150명의 수행원들이 동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RIA 통신은 김위원장이 모스크바로 향하는 도중에 여러 도시들을 방문할 예정이며 첫 경유지는 러-중 국경도시인 하바로프스크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인터넷 사이트 스트라나 닷러(Strana.ru)는 다음달 1-2일 **김정일**장군님이 옴스크의 탱크 제조공장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의 당국자는 ≪**김정일**장군님의 이번 러시아 방문은 블라디미르 푸틴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이은 답방의 성격이지만 내부적인 권력안정과 국제무대 진출의지를 과시하는 것≫이라며 ≪러시아 방문에 이어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이 이뤄지면 북한은 적극적으로 남한,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단기적으로 남북대화는 개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김위원장의 공석으로 소강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대외관계에 자신감을 더한 북한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이번 방문으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경제.군사원조를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하지만 부품원조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 러시아의 군사원조는 우려할만한 수준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와 올해 중국 방문에 이어 **김정일**장군님의 3번째 해외 나들이가 되는 이번 러시아 방문은 지난해 7월 북한을 방문한 푸틴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당초 지난 4월로 예정됐으나 북한측의 요청으로 연기된바 있다.

[모스크바, 연합=지일우 특파원]

김정일장군님께서 24일간 러시아 머문신다

지난 26일 러시아 방문길에 오른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달 18일까지 24일 동안 러시아에 머무를 계획이라고 서울의 외교소식통이 27일 밝혔다. 정부 관계자도 이날 이같은 일정을 확인했다.

그는 북한이 **김정일**장군님의 러시아 방문을 처음으로 공개한데다 이같은 장기간 체류계획을 잡은 것은 그의 정권 장악력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복원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사회주의 최고지도자로선 극히 이례적인 이번 방문의 배경을 예의 분석 중 이라고 말했다.

이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하산에서 이르쿠츠크로 직행한 뒤 다음 행선지인 옴스크에선 군사전자공단을 방문, T-80U 탱크제조 공장 등을 둘러보는 한편 화력 시범을 관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8월 3일 모스크바에 도착, 4일 한반도.동북아 정세, 북.러 경제.군사협력 문제를 놓고 블라디미르 푸틴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푸틴 주재 만찬에 참석한다.

이어 러시아 혁명의 발상지이자 제정 러시아 당시 서구 문물 도입 전초기지였던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둘러보고 다시 모스크바를 거쳐 11일께 과학도시 노보시비르스크의 첨단과학 연구센터를 견학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귀로에 유년시절을 보내고 아버지인 **김일성**(金日成) 주석님께서 항일투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진 하바로프스크를 둘러보고 18일 하산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오영환.이영종 기자



김정일장군님의 행로는 장군님만 알아

러 신문

김정일장군님의 특별열차는 행로는 있지만 **김정일**장군님의 희망에 따라 수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기착하게 될 지는 본인만 알고 있을 뿐이라고 이즈베스티야지(紙)가 28일 보도했다.

신문은 반(半) 르포성 기사를 통해 **김정일**장군님을 수행하고 있는 콘스탄틴 풀리콥스키 극동연방지구 대통령 전권 대리인 공보실을 인용, 열차의 진행 일정은 북한인들이 마련했으며 우리는 단지 대략적인 윤곽만 알고 있을 뿐 이라며 이렇게 전했다.

신문은 이어 북한 수반이 기자들과 만나기를 원치 않고 있다 는 풀리콥스키 대리인 공보실 말을 전하면서 **김정일**장군님서는 북한출신 고려인들과도 만나기를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문은 또 **김정일**장군님께서 (하산을 제외하고는) 아직 한 차례도 기차 밖으로 나온 적이 없다 고 전하고 역내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연방보안국(FSB) 요원들과 경찰들이 고려인들의 플랫폼 진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고 소개했다.

김정일장군님의 특별열차는 28일 치타 를 지나 29일 부랴티야공화국(러시아 연방을 구성하는 공화국)의 수도 울란우데에 기착할 예정이다.

부랴티야공화국 대통령의 대변인인 안드레이 카푸스틴은 **김정일**장군님께서 이곳에서 성대한 환영을 받을 것 이라며 주민들이 특별손님에게 주는 하닥(수장:綬章)을 전달하고 레오니드 포타포프 대통령이 직접 그를 영접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두마(하원) 및 부랴티야 의회 의원들 역시 그를 환송하게 되며, 이곳 예술계 거장들이 그를 위해 간단한 음악회를 열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김정일장군님의 열차는 이곳에서 1시간 머물 예정이다.

신문은 **김정일**장군님의 열차가 울란우데를 떠나 이르쿠츠크와 크라스노야르스크 등에 기착하지만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고 현재로서는 단지 전동차 교체와 차량 점검을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크라스노야르스크 관리들은 모스크바로부터 특별한 (영접) 지시를 받은 바 없다 고 말했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14세 때인 45년전 아버지인 고(故) 김일성(金日成) 주석님을 따라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통해 이곳을 들른 바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모스크바, 연합=지일우특파원]

북・러정상 남북문제 논의

러 소리방송

김정일장군님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다음달 4~5일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남북한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러시아의 소리방송 이 27일 보도했다.

서울에서 수신된 이 방송은 러시아가 평양과 서울의 통일을 적극 지지하며 푸틴대통령의 평양 및 서울 방문이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 면서 모스크바에서 열릴 **김정일**장군님과 푸틴대통령 사이의 협상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것 이라고 전했다.

이 방송은 또 지난해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서울과 평양의 대립을 추구하는 요소들이 점차 사라지고 정치・경제・군사・문화・인도주의 분야 등에서 진전이 이룩됐다고 지적했다.

방송은 이어 휴전협정 체결 48주년(7.27)과 관련해 이 휴전협정이 군사행동과 모든 적대시 행동을 완전 중지할 것을 예견했지만 한반도의 평화는 아직 찾아오지 않았다 고 언급했다.

특히 6.25전쟁이 유엔의 깃발을 들고 서울편에 서서 무장간섭을 한 미국과 평양의 편에서 전쟁에 투입된 중국인민지원군과 소련의 기술적 원조로 인해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뻔 했다 며 이 전쟁이 냉전시기 힘의 시험장으로 됐었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연합=최선영]

재러 친북단체, 김정일장군님 환영위 결성

러시아 거주 동포들로 구성된 친북단체인 러시아 고려인통일연합회(고통련) 가 지난 27일 모스크바에서 **김정일** 북한 노동당 총비서 환영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9일 보도했다.

중앙방송은 러시아 방문길에 오른 **김정일**장군님 환영준비위원회 위원장에 이동철 러시아 고통련위원장이 선출됐으며 위원들도 선출됐다고 전했다. 준비위원회는 **김정일**장군님의 러시아방문을 환영하는 모임을 모스크바를 비롯한 각 지역 조직에서 진행했으며 **김정일**장군님께 보내는 축전과 편지를 보냈다고 중앙방송은 밝혔다.

이 위원회는 또 **김정일**장군님 환영 및 환송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기 위한 결정 을 채택했다고 중앙방송은 덧붙였다.

[연합=남광식기자]

2001 휴전선 평화통일 대행진

≪대행진1≫ 16박 17일, 530km 대장정의 첫발을 내딛다

지난 27일, 독립문 공원에서의 발대식으로 ≪2001 휴전선 평화통일 대행진≫이 16박 17일, 530km 대장정의 첫발을 힘차게 내딛었다.

오전 11시에 서울을 출발한 행진단은 홍천 휴게소를 거쳐 오후 5시에 첫 번째 목적지인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 무사히 도착했다. 이곳 통일전망대는 민간인 출입이 가능한 최북단 지역으로 남북이 50년이 넘도록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휴전선 일대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이날은 날씨가 흐려 전방의 모습이 명확히 보이지 않아 참가단은 안내원의 설명에 만족해야 했다. 안내원은 전방에 남방 한계선과 북방 한계선이 함께 보인다는 것과 아군 기지와 북한군 초소가 직선거리로 550m에 불과하다는 것을 사진을 통해 자세히 설명했는데, 분단의 현실을 눈앞에서 확인한 참가단의 분위기는 사뭇 진지하면서 엄숙했다.

오후 6시, 전망대 관람을 마친 대행진 참가단은 통일맞이 사무차장이자 소설가인 ≪정도상≫씨(42)의 ≪화합, 희망, 평화의 길에 첫발을 내딛읍시다≫라는 구호아래 530km의 첫걸음을 시작했다.

이날 숙소인 명파초등학교까지의 거리는 약 6km로, 전망대 관할부대인 육군뇌종부대의 호위를 받은 참가단의 발걸음은 상당히 경쾌했다. 특히 육군 뇌종부대의 임승현 정훈장교(중위, 25)는 6km 여의 거리를 참가단과 같이 직접 행군했으며, 행진 후미에는 부대에서 지원나온 의료차량이 뒤따랐다.

참가단은 행군을 시작한지 1시간 30분만에 숙소에 도착하였으며, 식사와 세면을 마치고 전체 상견례 자리를 간단히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17일간의 대장정에 임하는 각오를 나름대로 피력하는 한편, 조별 구호를 함께 외치는 등 시종 진지하면서도 활기찬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 이번 행사의 최연장 참가자인 정순택(82, 장기수)씨와 최연소 참가자인 정효민(12)군이 각자 소개와 각오를 밝히는 자리에서는 참가자들의 뜨거운 환호와 호응이 이어졌다. 이처럼 뜨거운 분위기 속에 상견례를 마친 참가단은 오후 10시가 넘어서야 내일의 일정을 기약하며 취침에 들어갔다.

≪대행진2≫ 참가단, 강풍과 폭우 속에서도 행진 계속

≪2001 휴전선 평화통일 대행진≫ 참가단이 29일과 30일 이틀간 강풍과 폭우를 맞으면서도 행진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대회 2일차인 28일, 4시 30분에 기상한 참가단은 당포함 전몰장병 충혼탑을 거쳐 30도를 넘는 무더운 날씨와 뜨거운 햇볕아래에서도 행진을 계속해 숙소인 건봉사에 도착하여 여장을 풀었다.

비는 이때부터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여 다음날인 29일 오전에까지 이어졌다. 29일 일정은 진부령 고개를 넘어 용대초등학교까지 총 37.2km를 행진하는 힘든 코스로 아직 행진이 몸에 익숙해지지 않은 참가단의 어려움이 출발 전부터 예상됐었다.

빗방울은 행진이 시작된 오전 7시 이후 조금씩 굵어지기 시작했다. 대행진 참가단은 우의를 입고 행진을 계속했는데, 가파른 오르막길에 굵어진 비로 인해 일부 인원은 행진의 후미에 처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행진이 더 지체될 경우 상황이 악화될 것을 우려한 진행팀은 속도를 늦추지 않았으며, 결국 행진을 시작한지 약 5시간만인 오전 11시 50분에 진부령휴게소에 도착할 수 있었다.

비는 잠시 멈춘 상태였으며 참가단은 일단 이곳에서 여장을 풀어 점심 식사를 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다. 약 2시간 정도의 휴식을 마친 후, 오후 1시 40분 다시 행진을 시작했으며 오후 2시 30분에는 진부령 고개를 통과했다.

비는 이때부터 다시 굵어지기 시작하여 강풍을 동반하였다. 오후 3시 20분부터 참가단은 경찰차의 호위를 받으며 강풍과 폭우를 뚫고 숙소인 용대초등학교를 향해 행진을 계속했다. 그 와중에 행진의 후미는 상당히 뒤로 처졌으며 행진 속도도 많이 떨어졌다. 결국 오후 5시 50분에 참가단의 선두가 용대초등학교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날 참가단이 강풍과 폭우 속에서도 한 명의 낙오없이 일정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진행 도중 서로를 챙기고 힘을 북돋은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연소 참가자인 정효민(12)군도 다른 참가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행진에 참여했는데, 효민군과 같은 조원들은 효민군이 힘들어 뒤처질 때에 친형, 친누나 같이 챙기고 보살펴 주었다.

또한 고개를 넘는 힘든 과정에서도 참가자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어려움을 떨쳐 버렸는데, 저녁 식사 후 이어진 조별 토론 시간에 조원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게 나와, 함께 노래부르며 행진한 것이 이날 일정에 큰 힘으로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주최측은 힘든 하루 일정을 마치고 난 참가자들을 위해 행진 기간동안 금지되어 있는 술자리를 마련하였는데, 참가자들은 돌아가며 술을 권하고 노래를 부르는 등, 숙소는 금새 뜨거운 열기의 도가니로 바뀌었다. 그러나 활기넘치는 분위기 속에서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고민을 토로하는 진지함도 잊지 않았으며, 이날 뒷풀이 자리는 새벽 2시를 넘어서야 정리됐다.

다음날인 30일에도 강원 북부내륙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비는 계속해서 내렸으나 이날 일정은 큰 어려움없이 진행되었다. 비가 약해지기를 기다려 예정보다 다소 늦은 시각인 오전 10시 40분에 출발한 참가단은 폭우로 인한 도로 유실로 일정을 다소 변경하여 한계 삼거리까지만 행진했다.

오후 1시 20분, 한계 삼거리에 도착한 참가단은 이후 경찰승합차에 탑승하여 이날 숙소인 서화초등학교까지 차량으로 이동했다.

통일뉴스 2001-07-31
강원도 명파리, 오재훈 객원기자
(tongil@tongilnews.com)



민주노총, 통일선봉대 전국 순회활동 시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통일위원회는 지난해 제1기 노동자통일선봉대(통선대) 활동에 이어 올해도 제2기 통선대 활동을 다음달 4일부터 15일까지 11박 12일 일정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제2기 통선대는 다음달 3일 민주노총 지도부가 농성중인 명동성당을 방문하여 통선대 활동 계획과 일정을 보고하고 4일 오후 대구 경북대에 집결해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통선대 활동에 대해 민주노총 통일위원회 최정명 총무위원은 ≪그 동안 통선대 활동이 청년.학생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이제는 노동자가 통일운동의 중심으로 나서야 하는 시기라고 판단되어 통선대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2기 통선대 활동의 특징은 생존권 문제로 투쟁하고 있는 각 지역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격려하는 것과 매향리, 부산 하야리야 미군기지 등 미국을 반대하는 투쟁지역 그리고 경남 함안 등의 양민학살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러한 활동에 대해 최정명 총무위원은 ≪통일문제와 노동문제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하나의 문제라는 인식과 민족자주의 문제는 미국의 개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경주, 울산, 부산, 군산 등 전국의 대도시를 순회하며 노동현장을 방문할 통선대는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단위 노동조합 차원에서 통일사업 담당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무일꾼들을 확대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통선대 참가자는 60여명이었으나 올해는 부분 참가자를 포함해 120여명으로 늘었다.

이에 대해 최정명 총무위원은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면서 통일의 문제가 노동자 본인의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높아졌으며 통일을 가로막는 세력이 미국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 확대로 민족자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통선대 활동은 통일의 본질적인 문제가 민족자주임을 확인하고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면 올해 통선대 활동은 노동자 스스로가 통일문제에 적극적인 행동으로 표현해 나설 수 있는 성과를 기대한다고 최정명 총무위원은 전했다.

다음은 민주노총 2기 통선대 일정별 활동계획이다.

① 8월 3일
통선대 대표단 명동성당 농성장 방문

② 8월 4일
19:00 대구집결-식사 및 숙소배치, 각 중대 및 조 편성 완료
20:00 민주노총 제2기 노동자통일선봉대 발족식
21:30 분임토론 및 각 조별 결의
23:00 분임토론 내용 공유
23:30 단결의 시간

③ 8월 5일
07:00 기상 및 식사
이후 강연, 토론, 율동 및 선동 교육
19:00 저녁식사 후 -≫ 대구, 경주/ 울산으로 분산하여 이동

④ 8월 6일(울산/ 대구, 경북)
울산 및 대구, 경주지역 투쟁사업장 및 현장방문
-≫ 저녁 부산으로 이동

⑤ 8월 7일(부산)
오전- 화물 신선대 출투 20명, 그 외 하야리야 미군기지,
점심- 부산지하철 선전전
오후- 15시-신선대 투쟁
저녁- 19시-남구 통일한마당 결합 후 현장간담회
-≫ 경남/광주로 분산하여 이동

⑥ 8월 8일(경남/광주전남)
오전- (경남)함안 양민학살지 방문, 함안 한국제강 방문 후 광주로 이동, 광주 현장방문 및 선전전, 간담회
오후- 캐리어 등 투쟁사업장 연대집회 참석
저녁- 서구 통일축전 결합 후 기아 간담회
-≫ 전북지역으로 이동

⑦ 8월 9일(전북)
오전- 군산 미군기지 투쟁
오후, 저녁: 현장 방문투쟁(방문현장 미확정)
-≫ 대전, 충남으로 이동

⑧ 8월10일(대전, 충남/충북)
오전-대전, 충남 투쟁사업장 및 현장방문
오후-충북지역 투쟁사업장 및 현장방문 -≫ 인천으로 이동

⑨ 8월11일(인천)
오전- 투쟁사업장 방문
오후- 부평 미군기지 투쟁
저녁- 인천 지역통일한마당 참가 -≫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으로

⑩ 8월12일(경기)
오전- 매향리 투쟁
오후- 안산 사업장 탈환투쟁
저녁- 경기지역 통일한마당 참가

⑪ 8월13일(경기/서울)
오전- 평택 미군기지 투쟁
오후, 저녁- 서울지역 투쟁사업장 및 현장방문

⑫ 8월14일(서울)
오전- 서울지역 투쟁사업장 및 현장방문
오후- 용산 미군기지 투쟁
저녁- 노동자통일한마당 및 통일대축전 전야제 참석

⑬ 8월15일(서울)
행사일정 참가 및 해단식

김명숙기자(mskim@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07-30

대학생들, 삼복더위에도 북한바로알기 열기 거세





대학생들의 북한바로알기 학습열기가 삼복 더위를 이기고 있다.

29일 방학중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통일연대≫ 주최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대학생 여름 통일학교(통일학교)≫가 성남 경원대학교 학생회관 두 강의실에서 약 200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높은 반≫과 ≪낮은 반≫으로 나눠 진행됐다.

높은 반에서 김남식(경실련 통일협회)고문은 오전 오후에 각각 ≪북한사상의 이해≫와 ≪사회주의란 무엇인가≫를 강의했다.

김남식고문은 ≪북한사상의 이해≫ 강의를 통해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한 오해와 편향성이 많다≫고 지적하고 ≪주체사상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현실에 맞게 새로운 과제가 나와 새롭게 정리되는 특징이 있다≫며, 그 예로 ≪주체사상은 인간관, 사회관, 역사관, 혁명론, 의식론 등으로 계속 풍부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남식고문은 최근 방미여부 문제로 물의를 빚고 있는 황장엽씨에 대해 ≪계속 변하고 풍부화되는 주체사상의 특징으로 인해 주체사상은 어느 한 개인의 소유로 될 수 없다≫면서, ≪주체사상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황씨는 사실 주체사상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황장엽씨의 ≪주체사상 대부≫설을 일축했다.

또한 김남식고문은 오후 강의 말미에서 최근 학생들의 신(新)북한바로알기 운동과 관련 ≪북한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북한의 내적 논리부터 알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북한을 바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남한사회를 먼저 제대로 잘 아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낮은 반은 오전에는 박우형(민주노동당)씨가 ≪진보사상의 형성과 발전≫을 강의했으며, 오후에는 김영욱(한국노동운동협의회) 집행위원장이 ≪사람중심의 세계관≫을 강의했다.

그리고 저녁에는 정대연(전국연합)정책위원장의 ≪북한의 식량난과 그 극복과정을 통해 본 북한사회 이해≫ 강의가 진행됐다.

이어 30일에는 오전에 안영민(월간 ≪민족21≫)기자의 ≪북한사회에서 지도자는 어떤 존재인가≫와 민경우(범민련 남측본부)정책위원장의 ≪현정세와 반미자주화운동의 기조와 방향에 대하여≫ 강의가 각각 있을 예정이다.

대학생 통일연대의 이번 통일학교는 ◎ 학생들의 학습수준에 맞게 ≪높은 반≫과 ≪낮은 반≫으로 나눠 진행한 점 ◎ 강의후 시험을 보는 점 ◎ ≪도전 골든벨 체육대회≫를 여는 점 등 다양한 참여방법을 사용해 참신성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최천수(대학생 통일연대)대표는 이번 통일학교 개설 취지에 대해 ≪작년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열린 통일정세하에서 아직 학생들이 북한에 대한 의식수준이 낮고 통일운동에 대한 방향을 못잡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이제까지 분단상태에서 분단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천수대표는 ◎ 북한의 지도사상에 대한 이해 ◎ 분단의 원인과 분단 이후 역사에 대한 이해 ◎ 북한의 외교노선과 특히 고난의 행군시기 북한주민이 어떤 길을 걸었는가를 이해해서,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수준과 실천결심이 높아졌으면 하는 바램을 내비쳤다.

또한 최천수대표는 ≪통일의 파트너인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로 접근하고자 했는데, 이를 강의할 강사가 절대 부족함을 느낀 점이 준비상의 어려움이자 아쉬움≫이라고 덧붙였다.

경기 동부지역 대학생들이 주축이 된 이번 통일학교는 작년 여름방학, 올해초 겨울방학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행사이다.

이계환기자(khlee@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07-29

평양서 대규모 8.15 행사준비

북한이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 발표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대규모 8.15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24일 북한은 8.15 기념행사를 평양에서 대대적으로 개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행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열리는 행사는 현재의 남북관계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측은 이미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에 대해 각각 15명씩을 8.15에 맞춰 평양행사에 참여해 줄 것을 초청했다≫며 이같은 초청은 종교, 문화 등 각종 사회단체로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측의 일부 단체는 8.15에 맞춰 북측 사회문화단체 관계자를 서울에 초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라며 8.15 평양 행사와 북측의 초청은 당국간 회담이 중단된 상태이지만 남북관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남한의 전농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전여농), 북한의 조선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은 최근 금강산에서 열린 민족통일농민대회를 마치면서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 오는 8월 15일 평양에서 개최될 민족통일 대축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위업 실현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jyh@yonhapnews.co.kr
2001/07/24

용산 기지 앞에서 반미평화시위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와 ≪MD저지와 평화실현 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동당 등은 28일 오후 용산 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반미평화를 위한 국민 행동의 날≫ 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에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소속 학생 800여명이 27일 파월 방한 규탄집회에 이어 결합함으로써 집회장의 미국 반대열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결의발언에서 경기인천지역 총학생회연합의 양경수 의장은 ≪용산 미군기지의 철조망과 담장이 높게 쳐져있는 모습을 막상 보니 한총련이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범죄를 밥먹듯이 저지르는 미국은 죽음의 사절인 파월 미 국무장관을 보내 한국정부의 내정을 간섭하고 무기를 강매하는 등의 횡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양경수의장은 ≪앞으로 벌어질 반미투쟁에 한총련이 적극 결합하여 선봉적인 자세로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이 투쟁으로 미국이 한반도에서 한치의 땅도 가지지 못하고, 한마디의 말도 하지 못하도록 총력 투쟁을 벌이겠다≫고 결의에 찬 발언을 했다.

이에 집회 참가자들은 큰 함성과 박수를 보내 양경수의장의 발언에 지지의 뜻을 표했다.

이어 정치발언으로 나선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김규철고문은 ≪미국은 6.15공동선언을 공식적으로 지지한 적이 한번도 없으며 이는 한반도의 영구분단으로 평화정착만을 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6.15공동선언을 실천하는 것만이 한반도의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규철고문은 ≪≪남북노동자 5.1절 통일대회≫와 ≪남북농민 통일대회≫ 등에서 이미 남북은 한민족을 확인했다≫며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6.15~8.15) 동안 남북이 더욱 단단한 관계로 다져 올해를 우리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로 만들자≫고 주장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용산 미군기지 주변을 행진하고 집회를 마무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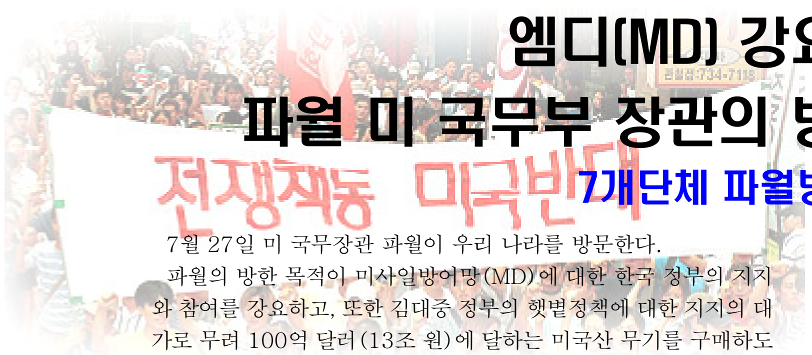
그러나 경찰은 집회가 끝난 후에도 한총련 소속 학교의 깃발을 중심으로 각각의 대오가 이동하자 이를 적극 저지했다.

이는 새로 부임한 용산경찰서장의 지시로 이루어졌으나 경찰 내부의 이견으로 곧 명령은 철회되고 대오 일부는 연세대 문화제에 참여하기 위해 떠났고 나머지는 각기 흩어진 상태에서 집회는 종결됐다.

이날 집회에서는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민주노동당이 진행하고 있는 반미집회에 미국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연대하여 적극 참여하기로 결의했다.



김명숙기자(mskim@tongilnews.com)
[출처:통일뉴스 2001-07-28]



엠디(MD) 강요, 무기 강매
파월 미 국무부 장관의 방한을 강력히 규탄한다.

7개단체 파월방한 반대성명

7월 27일 미 국무장관 파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한다.

파월의 방한 목적이 미사일방어망(MD)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와 참여를 강요하고, 또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의 대가로 무려 100억 달러(13조 원)에 달하는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도록 강요하기 위한 데 있다는 것은 새삼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미국의 MD 구축은 세계 유일 패권을 유지·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 평화를 파괴하고, 특히 한반도 평화와 우리 민족의 통일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를 단호히 반대한다.

미국의 MD 구축은 방어≫라는 허울좋은 미명하에 실제로는 세계 모든 나라들을 무장해제 시키는 반면 미국만이 선제 핵공격 능력을 보유하겠다는 패권적 발로다. MD 구축은 또한 냉전 해체로 위기에 빠진 미국의 군산복합체들에게 무한정한 이윤을 보장해 주기 위한 데 그 의도가 있다.

따라서 미국의 MD 구축은 필연적으로 전 세계적 차원의 무한 군비경쟁과 자원낭비를 불러오며 세계를 다시 과거의 냉전시대로 되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난 7월 14일 MD 구축을 위한 제4차 요격 실험을 강행하였으며, 탄도탄 요격미사일 제한(ABM) 협정을 파기하고 앞으로 5년간 무려 20차례나 미사일 요격 실험을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세계 각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군사주의적 패권 추구에 혈안이 되어 있는 미국이야말로 전 세계의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깡패국가≫임을 명확히 밝혀 둔다.

우리는 특히 미국이 우리 민족을 볼모 삼아 MD 추진을 정당화하고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데 대해서 온 민족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은 최근 자국 대사관과 미군사령부에 보낸 훈령을 통해서 MD 구축이 단기적으로는 북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드러냈다. 이에 미국은 이미 2003년까지 해상 미사일방어망의 핵심 체계인 이지스함 2척을 동해 상에 배치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한반도와 그 인근에 본격적으로 MD 무기체계를 배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바야흐로 미국은 한반도와 우리 민족을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의 첫 실험장이자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는 우리 국민의 혈세로 미국 군산복합체들의 잇속을 채워 주고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대결을 조장하려는 부시 정권의 한국 정부에 대한 무기 강매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특히 파월은 취임하자마자 이정빈 전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미 보잉사의 F-15K 전투기를 구매하도록 압력을 넣었을 정도로 미국 군산복합체들의 이윤 추구에 앞장서고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F-15K 전투기는 한국에서 구매하지 않으면 생산라인을 폐쇄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는 낡은 기종이자, 이 생산라인에 미국 노동자 5000 여명의 일자리가 달려 있다고 한다. 부시 정권은 한국 민중들의 고혈로 미국 군산복합체와 자국의 노동자들을 먹여 살리고자 하는 것이다.

무분별한 미국산 무기 도입이 남북간 군사적 대결과 긴장을 격화시켜 한반도에 다시 전쟁의 위기를 불러오게 되리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어디 그뿐인가? 부시 정권은 북미 대화의 조건으로 이른바 과거 핵 검증≫, 미사일 개발 및 수출 금지≫, 재래식 전력 완화≫ 등의 의제를 내세워 대북 강압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남측 당국의 북에 대한 전력 지원을 가로막는 등 남북관계를 경색시키고 6·15 공동성명의 이행을 가로막고 있다.

부시 정권의 대북 강압정책과 남측 정부에 대한 부당한 간섭은 분단이래 처음 조성된 우리 민족의 통일의 기운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와 같이 파월은 한국 정부에 MD 참여, 무기 강매, 대북 강압정책을 관철시킴으로써 우리의 주권을 농락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긴장을 격화시키고 우리 민족의 통일을 저해하는, 다름 아닌 죽음의 사절이다.

이에 우리는 온 국민의 분노를 담아 감히 우리 민족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려는 부시 정권과 파월의 방한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한다. 나아가 우리는 전 민족의 힘을 모아 미국의 MD 구축, 무기 강매, 대북 강압정책을 파탄내고 기필코 한반도 평화와 우리 민족의 통일을 쟁취하고 말리라는 것을 다짐해 두는 바이다.

2001년 7월 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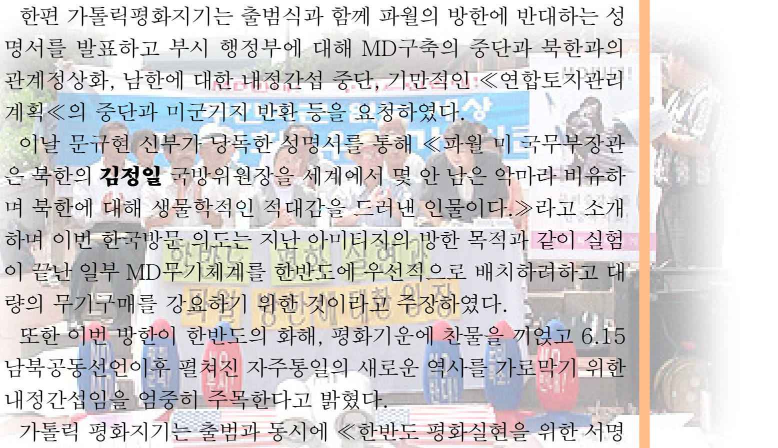
MD 저지 공대위, 민중연대, 통일연대, 소파개정 국민행동 매향리 범대위, 미군기지 공대위,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천주교계의 파월 방한 반대

가톨릭계에서는 지난 6월부터 평화, 군축, MD반대를 위한 모임 준비를 하여 26일 11시 명동성당에서 ≪가톨릭평화지기≫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MD체제 저지와 막대한 군사비를 사회복지비로 환원시키는 사업 등을 전개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가톨릭평화지기 박순희 공동대표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지금이 한반도 평화실현과 민족의 화해를 위한 중요한 시기임을 고백하며, 지난 분단사와 강요된 전쟁의 논리를 거부하고 이제는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새 하늘 새 땅의 역사가 한반도에서 이루어 지길 비는 마음으로 하느님과 민족 앞에 출범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출범선언문을 통해 미국의 MD정책의 즉각적인 중단과 평화협정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 보장을 요구하고, 김대중 정부에 대해 대량무기도입 중단, 군축을 통한 가난한 이들의 생존권과 복지를 보장할 것, 그리고 불평등한 SOFA의 전면개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을 요구하였다.



한편 가톨릭평화지기는 출범식과 함께 파월의 방한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부시 행정부에 대해 MD구축의 중단과 북한과의 관계정상화, 남한에 대한 내정간섭 중단, 기만적인 ≪연합토지관리계획≪의 중단과 미군기지 반환 등을 요청하였다.

이날 문규현 신부가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파월 미 국무부장관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세계에서 몇 안 남은 악마라 비유하며 북한에 대해 생물학적인 적대감을 드러낸 인물이다.≫라고 소개하며 이번 한국방문 의도는 지난 아미티지의 방한 목적과 같이 실험이 끝난 일부 MD무기체계를 한반도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려하고 대량의 무기구매를 강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번 방한이 한반도의 화해, 평화기운에 찬물을 끼얹고 6.15 남북공동선언이후 펼쳐진 자주통일의 새로운 역사를 가로막기 위한 내정간섭임을 엄중히 주목한다고 밝혔다.

가톨릭 평화지기는 출범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MD반대, 무기도입 중단, 평화협정 체결, SOFA 개정 등의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뉴스(www.tongilnews.co.kr)
오인환 기자(ihoh@tongilnews.com)



부시 대통령에게 보내는 경고문

우리는 지난 4월 9일 MD 저지와 평화실현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면서 귀하에게 당장 MD 구축을 포기하고 핵무기의 진정한 감축과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귀 정부는 한국인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지지하고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인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3개월 여가 지난 지금 귀 정부가 우리의 강력한 요구와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MD 구축을 강행하는 모습에, 그리고 남북 화해의 길로 접어든 한반도를 그 첫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의도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귀 정부가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MD는 세계인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귀 정부에 막대한 정치자금을 제공해 온 군산복합체의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그리고 세계를 또 다시 군비경쟁과 대결로 몰아가고 있다는 점을 말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귀 정부가 한반도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려는 MD 무기들이 북한의 미사일 전력을 완전히 무력화함으로써 북한의 전쟁억지력을 제거하고 선제공격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그래서 MD가 한반도를 또 다시 전쟁 위기 상황으로 몰아 넣을 것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귀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꺼리는 것도 그 동안 공들여 만들어 놓은 ≪북한 위협론≫이 사라지면 귀 정부의 MD 구상에 차질이 생길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상식에 벗어난 의제를 제시한 것은 귀 정부가 진정으로 북한과 대화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말입니다.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관계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김대중 정부에게 귀 정부의 MD 계획에 참여하라는 압력을 행사해 온 것을 말입니다. 주한미군과 그 가족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한반도에 MD 무기체계를 배치하려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이러한 계획 하에 MD 무기들을 배치하기 위해 귀 정부가 주한 미군기지 개편을 추구하고 있는 것도 잘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정부와의 충분한 협의나 한국 국민들의 어떠한 동의도 없이 귀 정부 마음대로 한국을 MD에 끌어들이고 그 전초기지로 삼으려는 오만한 태도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시 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 당장 MD 구축을 중단하고 세계 및 한반도 평화 실현과 우리 민족의 통일에 협력할 것을.



김대중대통령에게 보내는 촉구문

- 한국 정부의 MD 불참 선언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부시 행정부의 MD 구축이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실현, 그리고 남북한 민중들의 복리 증진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대통령께 이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MD에 대해 ≪이해한다≫는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미국의 MD에 포섭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MD에 대해 지금과 같이 모호하고 안일한 태도로 일관할 경우 MD에 포섭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 동안 정부는 미국 본토 방어용으로 추진되어 온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에 대해서는 찬반을 유보하고 이해≫하는 수준에서, 해외 주둔 미군 및 미국의 동맹국 방어용으로 추진된 전역미사일방어체제 (TMD)에 대해서는 불참≫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NMD와 TMD를 통합하여 MD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NMD와 TMD를 분리해서 대응해 온 정부의 입장 역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부시 행정부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을 MD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무기체계의 한국 내 배치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시 행정부는 본격적인 MD 배치에 앞서 북한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PAC-3, 요격미사일이 장착된 이지스함, 항공기 탑재 레이저(ABL) 등을 내년부터 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의 군사지리적 이점을 고려해 MD 체제에서 상대방 미사일을 추적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고성능 레이더 건설 후보 지역의 하나로 한국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미합중국의 육 · 해 ·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어 미국이 레이더 기지 건설 수락을 비롯한 MD 관련 무기 체계의 배치를 요청할 경우 거절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현실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시 행정부의 MD 무기 배치 계획이 우리 정부와 협의를 통해 결정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국민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한국 정부가 MD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무기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무기도입이 탄도미사일 방어망 구축과 연관되어 있다고 시인함으로써 한국이 미국의 MD 체제에 포섭될 개연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전력증강사업의 일환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PAC-3와 이지스함이 ≪미국이 주도하는 MD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강변해 왔으나, 이에 대해 거듭 문제가 제기되자 ≪독자적으로 미사일 방어망을 갖는 것과 미국의 MD에 참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시도하고 계신겁니까? 한미관계의 특수성과 우리의 경제력, 기술력을 감안할 때, 그리고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독자적인 MD를 구축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고 필요한 것인지, 오히려 미국의 MD 체제에 편입되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지는 않을 것인지 귀하는 국민들의 의혹을 명확히 씻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우리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한미군 기지 시설 재편이 MD 기지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합토지관리계획의 근저에는 군사적 용도가 폐기된 기지와 시설들을 한국에 반환하고 미군기지를 새롭게 재편 ·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기지 재편 계획의 핵심에는 미사일방어체제 건설이 있습니다. 귀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이 우리의 국익과 국민적인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채, 미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강한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한국 정부 일각에서 한미동맹관계를 우선해야 한다며 미국이 MD를 계속 추진한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참가해야 한다는 체념 어린 대세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MD가 21세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 실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국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미국을 따라가는 것이 안전하다는 안이한 발상이 팽배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은 우리 정부가 MD에 대해 보다 확고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눈치를 의식한 나머지 미국 측 요구에 계속 끌려 다닌다면 머지 않아 미국의 MD 체제에 말려들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귀하께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강력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1. 정부는 지금까지 ≪MD를 이해한다≫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MD 불참을 공식화하고 부시 행정부가 MD를 추진하는 명분으로 북한을 들먹이고, MD 구축을 합리화하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꺼리는 것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정부는 부시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한국 및 그 인근에 MD 무기체계를 배치하려는 것을 결코 수용해서는 안됩니다. 한국 정부와의 충분한 협의나 국민적인 동의절차 없이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MD를 배치한다는 것은 명백한 주권침해입니다.

3. 정부는 미사일방어체제와 관련된 무기도입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들 무기체계는 미국의 MD 체제에 편입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4. 정부는 연합토지관리계획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전력구조 개편이 MD 기지 확보를 비롯한 전력증강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즉 미군의 필요에 따른 기지 개편이 아니라 우리의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해야 합니다.

5. 마지막으로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민족의 운명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MD 대책 마련에 사회운동단체들과 지혜를 나누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2001년 7월 25일
MD 저지 공대위, 민중연대, 통일연대, 소파개정 국민행동
매향리 범대위, 미군기지 공대위, 투자협정 · WTO 반대 국민행동





한총련 파월방한 반대 성명

왜 일개 국무장관 방한으로 우리 민족의 운명이 좌지우지되어야 하는가

내정간섭, 통일방해, 무기강매 파월 방한 결사 반대한다

일개 국가의 국무장관이 온다는데 왜 온 나라가 시끌벅적한가. 언론은 연일 그의 방한을 비중있게 보도하고 있고 정부는 그를 안전하게 맞이할 준비로 분주하다.

27일,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방한한다. 도대체 한국은 미국이라는 나라와 어떤 관계에 있기에 여느 나라의 대통령이 오는 것 보다 더 부산을 떤단 말인가.

우리는 바로 이 점에서 비장한 현실을 엿보게 된다. 파월은 이번 방한 기간동안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와 남북관계를 조율≫한다고 밝히고 있다. 일개 국가의 국무장관의 방한으로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가 좌지우지되는 현실을 개탄하는 것이다.

파월은 매우 심상치 않은 시점에 한국을 방문한다.

지금은 6 · 15 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 좋게 발전하던 남북관계가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으로 난관에 봉착해 있는 시기이자, 남북해외 7천만 겨레가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을 선포하고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고자 투쟁하는 시기이다. 파월이 말하는 대북정책기조 논의는 논의≫가 아니라 이북을 불량국가로 규정짓고 있는 미국의 불량한≫ 시각에 동조할 것을 요구하는 강압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또한 연합토지관리계획이라는 소위 주한미군기지 통합반환계획이 발표된 시점에서 MD체제구축을 통해 한반도를 효과적인 미사일 시험장으로 만들 모종의 계획을 밀어부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여기에 자동차, 철강 교역에 대한 통상압력도 예상된다고 하니 파월의 방한은 우리 민족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다.

파월을 맞이하는 김대중 정권은 심사숙고해야할 것이다. 현정권은 6 · 15 남북공동선언 합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에 편승해 외세공조에 한 눈을 팔며 스스로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현정권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민족공조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미국의 강도같은 요구를 과감히 뿌리치고 민족의 이익을 지켜내야할 것이다.

파월 방한은 절대 정상적인 외교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방문이 아니다. 미국 제1의 우방이자 식민지≫인 한국에 대한 통치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총련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내정간섭을 일삼는 파월의 방한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파월이 만약 신성한 조국땅을 마음대로 짓밟는다면 즉시 우리 민족의 분노를 보여줄 것이다.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 2001년 7월 26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9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 최승환)

일본의 추악한 력사외곡책동을 론함

조선중앙통신 론평

(평양 7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 정의와 진리, 지성과 도덕을 인류문명의 보편적기준으로 삼는 21세기 국제무대의 한 모퉁이에서 전고미문의 반인륜적, 반력사적범죄행위가 국가조직적으로 뻔뻣이 계획추진되고 바야흐로 실행단계에까지 이르러 전 세계를 경악케 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일본당국과 우익세력들의 추악한 력사외곡책동이다.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과 조선과 아시아나라들에 대한 군사적강점, 치욕의 략탈사를 반인륜적범죄로 락인한 제2차 세계대전후의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력사인식에 정면으로 도전해 나선 이 파렴치한 책동에는 국수주의사상이 골수에 찬 우익분자들로부터 정부, 여당의 공식인물들까지 합세하여 일본사회를 또다시 암흑의 나락, 신파쑈의 길로 이끌어 가고 있다.

일본의 력사외곡, 력사부정책동은 어제오늘에 시작된것도 아니고 새삼스러운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에 와서 중대한 국제적사태로 부각되고 아시아 각국의 극도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것은 침략과 범죄의 력사에 대한 은폐, 축소로부터 시작된 력사외곡책동이 전면부정, 전면외곡, 극구 찬양에로까지 이어 져 정부당국의 공식인정을 받아 냈기때문이다.

지금 일본에서는 일본의 피 비린 과거 침략사가 ≪정의의 위업≫으로 정당화되고 아시아침략과 태평양전쟁을 주도한 수급전범자들이 ≪영웅≫으로 찬미되고 있는가 하면 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통치가 ≪합법적≫이였다는 파쑈적인 강변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더우기 스쳐지날수 없는것은 일본당국이 2002년부터 교육에 도입하도록 공식 승인한 새로운 중학교용력사교과서가 일본의 건국신화로부터 고대 및 중세사는 물론 근대사와 현대사까지도 완전히 국수주의와 민족배타주의사관으로 일관시킨 도저히 력사교과서라고 말할수 없는 추악한 위조문서라는것이다.

≪새 력사교과서≫는 ≪황국사관적≫인 국수주의를 로골화한 나머지 일본을 ≪신의 나라≫로, 야만족에 불과했던 야마또민족을 가장 ≪우월한 민족≫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아시아침략에 나선 침략군들을 ≪천황과 국가에 충직한 렬사≫로, 아시아침략과 태평양전쟁을 ≪성전≫으로 찬미하는 한편 ≪종군위안부≫범죄와 대학살만행들을 비롯한 특대형의 반인륜적죄악들은 모조리 삭제하고 있다.

교과서에 반드시 서술해야 할 력사적사실들을 국수주의사관에 맞추어 고의적으로 빼놓은것은 력사외곡보다 더 심각한 문제이다.

그것은 범죄적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로부터의 교훈과 미래에 대한 설계도 없기 때문이다.

5, 000여년전의 일도 아니고 불과 50여년전의 력사적사실, 그것도 타국과의 관계에서 빚어 진 사변들을 이렇듯 파렴치하고 비렬하게 날조, 외곡, 삭제한 나라는 이 행성에 오직 일본뿐이다.

이것이 과연 일본력사학계의 무지에서 비롯된것인가.결코 그렇지 않다.

일본에는 객관적이며 불변적인 력사의 본질을 꿰뚫어 볼줄 아는 지성인들도 있고 력사외곡책동이 가져 올 파멸적후과를 우려하는 사회단체들도 없는것이 아니다.

또 문제의 력사교과서를 집필한 인물들이 대단한 학자들도 아니고 정치력사적, 학술적식견을 깊이 지닌 자들이 아니라는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새 력사교과서≫와 관련된 사건이 커다란 위험성을 안고 있는것은 그것이 단순히 력사외곡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신파쑈에 물든 이러한 국수주의자들의 론리가 일본사회에 그대로 받아 들여 질 정도로 일본이 급격히 우익보수화, 군국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사회를 누가 이렇게 신파쑈가 활개치는 지성의 불모지로 만들었으며 누가 력사학자들도 아닌 우익분자들을 내세워 침략과 범죄의 력사를 전면외곡, 전면부정, 극구 찬양하게 하고 있는가. 바로 일본의 미래를 설계하고 건설한다고 하는 현 정치인들이다.

일본당국은 ≪새 력사교과서≫와 관련한 분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아시아 각국에서 비발치는 항의가 쏟아지자 교과서의 력사관과 일본정부의 력사관은 서로 다르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중대한 정치적범죄, 정치사기행위이다.

일본의 침략전쟁과 해외팽창을 적극적으로 미화분식한 ≪새 력사교과서≫는 일본정계와 재계, 학계의 철저한 정치적합작품이다.

일본집권여당인 자민당내에 105명의 ≪유명인≫들로 구성된 ≪력사검토위원회≫가 설치된것은 지금으로부터 8년전인 1993년 8월이였다.

≪력사검토위원회≫는 설치되자마자 력사학자들을 련이어 불러다가 20여차의 ≪토론회≫를 벌려 놓은 끝에 패전 50년이 되는 1995년 8월 15일 ≪대동아전쟁의 총괄≫이라는 책을 발행했다.

책의 내용은 물론 극단적인 민족주의를 설교하고 일본의 아시아침략을 ≪백인들의 지배로부터 아시아를 해방하기 위한 정의의 전쟁≫으로 미화한것이였다.

국수주의사관을 집대성한≪≫대동아전쟁의 총괄≫발행과 때를 같이하여 자민당의원들을 비롯한 정치권은 현재 사용중인 력사교과서가 ≪자학사관≫, ≪일본해체사관≫에 빠져 있다고 맹렬히 비난하면서 력사외곡을 공공연히 요구하는 성명서와 결의문을 잇달아 발표해 왔다.

정계의 이러한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어 국수주의학자들은 정계와 재계의 후원을 받아 1995년과 1996년에 ≪자유주의사관연구회≫와 ≪새 력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을 결성하였고 드디여는 완전히 외곡날조된 력사교과서를 만들어 내는데까지 이르렀으며 정부당국은 즉시 이 력사교과서를 검정에서 공식 합격통과시켰다.

국수주의를 적극 부추기고 있는 일본언론이 이에 가담했다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력사외곡음모의 직접적산물인 ≪새 력사교과서≫가 출간되게 된 력사적진상은 이렇다.

보다 중대한 사태로 되는것은 일본에 있어서 추악의 대명사로 된 이러한 력사외곡책동이 무엇때문에 꼭 필요했는가 하는것이다.

여기에는 언제든지 한번은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그 력사를 되풀이하여 ≪대동아공영권≫의 야심을 기어이 실현해 보려는 그들나름의 간악한 속심이 깔려 있다.

일본의 력사외곡책동은 본질에 있어서 전쟁패전과 침략사, 범죄사에 대한 전면부정인 동시에 정의와 진리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국민들을 아시아재침의 돌격대로 길들이기 위한 ≪황국신민화≫, ≫국민우매화≫정책의 변종이다.

일본은 철학이 없는 나라이며 력사적으로 지극히 비정상적인 나라이다.때문에 력대 일본통치배들은 ≪황국사관적≫인 극단적민족주의로 국민들을 손쉽게 길들일수 있었고 ≪천황≫과 ≪국가≫에 대한 광신적인 ≪충성≫을 강요하며 침략전쟁, 략탈전쟁에로 그들을 내몰수 있었다.

국수주의는 반드시 민족배타주의, 군국주의에로 이어 지는 법이다.교육현장에서 국수주의를 주입 받고 군국주의사상을 골수에 새긴 이 일제침략군에 의해 수천만명의 무고한 아시아인민들이 살륙되였으며 각국의 수억만금의 재부가 략탈 당하여 일본으로 실려 갔다.

력사에는 진시황의 ≪분서갱유≫사건과 히틀러의 ≪진보도서소각≫사건과 같이 국민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한 문명파괴행위가 적지 않게 기록되여 있지만 일본처럼 타민족을 정복할 목적밑에 체계적이며 전면적으로 국민우매화정책을 실시해 온 나라는 없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후에야 일본인들은 국수주의의 허무

함, 군국주의의 무모함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것은 일본국수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였다.

이로부터 일본우익세력들은 정신적으로는 력사교과서의 개악과 야마또민족의 우월성주입, 정부각료들의 ≪야스구니진쟈≫참배의 공식행사화를 통하여 사회전반에 걸쳐 국수주의적흐름을 적극 조장하는 한편 군사적으로는 ≪자위대≫의 해외파병과 군비증강, ≪유사시법≫의 제정 등을 한걸음한걸음 추진시키며 군사대국화의 기틀을 축성해 왔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남은것은 고조되고 있는 국수주의적분위기를 교묘히 활용하여 미래의 침략전쟁을 담당수행할수 있는 무지한 ≪충신≫들을 대대적으로 양성해 낼수 있는 정치적 및 사회력사적 조건을 마련하는것이다.

일본우익세력들이 력사외곡, 력사부정책동에 그처럼 집요하게 매달리며 국수주의를 고취하는 주되는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은 새 세대들속에 죄 많은 력사를 ≪정의의 력사≫로 인식시켜 그들을 군국주의의 신봉자로 만들고 군사대국, 핵대국으로 되기만하면 ≪대동아공영권≫의 꿈을 실현할수 있으리라 타산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는 벌써 41년간에 걸치는 조선에 대한 일제의 군사적강점통치조차 모르고 아시아침략을 ≪해방전쟁≫, ≪일본의 긍지≫로 인식하고 있는 새 세대가 30프로이상이나 된다고 한다.

무지중에서도 너무나도 저급하고 혹독한 무지이다.

무지는 범죄를 낳는다는 말이 있다.따라서 오늘 일본의 무지는 결코 무죄가 될수 없다.

인간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력사를 인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간자격상실이며 사회적존재로서의 가치상실이다.력사는 아무리 비참하고 수치스러운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직시하고 거기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을 때에만 보다 풍요로운 미래를 설계할수 있는 용기와 확신을 주는 법이다.

침략과 범죄의 력사, 그로부터 초래된 파국적후과와 교훈은 다 덮어 버리고 오직 ≪신의 나라≫, ≪우월한 민족≫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민족배타주의적국수주의사관으로 교육된 무지하고 기형적인 일본의 새 세대가 치욕의 력사를 되풀이하리라는것은 지난 세기의 침략전쟁과 그 전쟁에서 군국화된 일본인들이 담당해 온 역할을 놓고 볼 때 피할수 없는 현실이다.

일본우익세력들이 침략과 범죄의 력사를 전면외곡미화하는 다른 하나의 목적은 일본이 ≪정의의 위업≫을 수행해 왔기때문에 반인륜적범죄에 대하여 죄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으며 국가적배상을 할 필요도 없다는 의식을 국민들속에 심어 주자는데 있다.

일본우익정객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내드는 론리의 하나가 일본인 자신이 군국주의의 가장 ≪큰≫ 피해자이기때문에 전쟁의 책임을 어디에도, 또 누구에게도 물을수 없는것이 일본의 문제라는것이다. 물론 일본인은 무모한 군국주의광란에 휘말려 커다란 희생을 치른 불행한 민족인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누가 그 전쟁을 일으켰으며 그 진범인은 누구인가. 무엇때문에 일본인들은 군국주의전쟁을 반대하지 못하고 ≪충성≫을 부르짖으며 광란적으로 전장에 달려갔고 무슨 리유로 수천만에 달하는 타민족을 살륙하였는가.

만약 다른 나라가 일본을 침략하고 수백만의 일본인들을 살륙한뒤 전쟁에서 자기들도 피해를 보았기때문에 어디에도 책임을 물을수 없다고 한다면 일본은 과연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도이췰란드와 이딸리아는 전후 군국주의를 과감하게 청산하고 전쟁범죄에 대한 처형과 재판, 국가적배상을 통해 전후처리를 꾸준히 해왔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

허나 잔혹하기 이를데 없는 전쟁범, 가해자 일본은 어느새 슬그머니 ≫피해자≫로 둔갑하여 과거청산은커녕 비렬한 방법으로 전쟁책임문제까지 회피하고 있다. 도대체 일본이라는 나라와 이 나라에서 살고 있는 우익분자들은 어떻게 되여 그렇게도 비겁하고 파렴치한가. 인간의 존엄과 도덕도 모르고 력사를 한순간에 뒤집어 버리는 일본우익세력들의 비인간성과 반력사적행위에 세계는 이미 침을 뱉았다.

20세기 인류사를 최대의 집단강간행위로 더럽히고도 그것을 력사의 흑막속에 묻어 버리려는 일본우익세력들의 책동은 도덕적으로 마비되고 인간적으로 불결한 이 나라의 실상을 다시금 돌이켜 보지 않을수 없게 하고 있다.

≪종군위안부≫범죄는 일본정부의 국가조직적인 대강간행위인만큼 반드시 ≪가해자 일본정부－피해자 이전 (종군위안부)≫라는 법률당사자관계에서 처리되여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일본당국은 후안무치하게도 그 무슨 ≪국민기금≫이라는 것을 설치해 놓고 모든 책임을 회피하다 못해 끝끝내는 극우학자들을 부추겨 력사교과서에서 이 특대형의 반인륜적범죄의 실상을 송두리채 들어내 버리고 말았다.

참으로 인륜도덕이 시시각각으로 말살되고 지성과 도덕, 진실이 자랄수 없는 일본의 정치풍토, 섬나라적토양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일본우익세력들의 극단적이고 비인간적인 이러한 행위에 환멸을 느낄대로 느낀 국제사회의 일부에서 일본이 그대로 계속 력사를 외곡하고 군국주의의 길로 나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하는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가혹하기는 하지만 그 길이 일본이라는 나라를, 또 그 나라에서 반인륜적행위를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는 우익세력들을 완전하고도 철저히 자멸시킬수 있는 길이기때문이다.

일본이 지난 세기에 감행해 온 모든 범죄－략탈적인 침략전쟁과 대학살만행, 집단강간행위, 최대규모의 랍치련행, 패전에 따른 집단자살－이것은 일본렬도를 휩쓴 한차례의 광증이였다.그 광증뒤에 남은것은 무엇이였던가.

스스로 가져 온 파멸이였다.

일본은 우선 모든것을 뒤로 하고 일본인들이 왜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안되였으며 그 범죄의 책임과 원인이 누구에게, 어디에 있는가를 가려 내야 한다.

특히 국수주의로부터 시작된 군국주의의 무모함과 파멸적후과를 밝혀 내고 책임소재에 따라 피해국들에 무조건적이고도 철저한 사죄와 보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만이 일본은 또 한차례의 파멸로부터 구원될수 있다.

일본이 국제사회의 이 요구와 력사의 순리를 무시하고 국수주의사관에 기초한 저주로운 력사외곡책동을 계속한다면 불피코 파멸할수밖에 없다.

≪우리는 학교에서 교육칙어를 주입 받고 신화를 사실로 믿고 전장에 내몰린 군인이였다. 지금 (새 력사교과서)가 그리는 (인간상)－그것은 55년전에 아시아인민들에게 커다란 참해를 입혔던, 그래서 파멸했던 우리들이다.이런 교과서가 교육현장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된다.≫

이것은 지난 3월 침략전쟁에 내몰렸다가 포로되였던 전 일본군병사들이 기자회견에서 랑독한 성명서의 일부분이다.

일본의 정치인들은 지금이야말로 일본의 파멸을 예고한 군국주의 피해자들의 력사적고발과 력사외곡행위를 배격하는 국내 진보세력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새 력사교과서≫를 교육에 도입하는가 안하는가 하는 문제가 바로 일본의 정치적미래를 결정하는 사활적인 문제인 동시에 정의와 부정의, 진보와 보수와의 첨예한 대결이기때문이다.

일본우익세력들의 력사외곡책동은 이러한 의미에서 국수주의, 군국주의의 부활로 진보세력의 전면말살을 노린 신파쑈테로행위이며 일본사회에서 정의와 민주주의를 거세하기 위한 반민주, 반민족적 행위이다.

이 행위를 저지시키지 못한다면 일본에는 더는 밝은 미래가 없다.

일본당국과 우익세력들은 자국의 장래를 두고 정치적도박을 하지 말아야 한다.만약 그들이 끝끝내 외곡된 력사교과서를 교육에 도입하며 범죄의 력사를 미화한다면 그것은 21세기 인류사에 가장 수치스러운 죄악으로 기록될것이며 그 장본인들은 후세에 가서도 영원히 저주를 면치 못할 것이다.

www.kcna.co.jp



일본은 과거를 왜곡하지만 조선일보는 현재를 왜곡한다

교수들도 나섰다, ≪조선≫ 거부 확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공동의장 황상익, 이하 민교협)는 7월 30일 오전 10시50분 안국동 철학카페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 구독거부와 언론개혁 촉구 선언≫을 발표했다.

민교협은 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조선일보가 일제 강점기 시절 창간된 이후 특정 시기에 조선일보 기자들의 노력에 의해 사회에 기여한 역사가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면서 하지만 ≪방응모씨가 인수한 이후 지속적으로 권력과 야합해왔다≫고 말했다.

민교협은 조선일보가 ≪본질을 벗어나 결과만을 가지고 왜곡하거나, 반 개혁적 집단의 주장만을 전달하고 개혁적 요구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고 지적하고 ≪지금까지도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조선일보를 구독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교협은 ≪(조선일보의) 왜곡 편파 보도가 일시적이고 간헐적인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고 수구언론을 선도하고 있는 조선일보에 대한 구독거부 운동을 벌이고자 한다≫며 △기고 · 취재 · 인터뷰 거부 △구독 거부는 물론 주위에 구독 거부 권유 △각종 공론의 장을 통해 언론개혁의 정당성 주장 △ 개강 이후 학생들과 언론개혁을 주제로 토론 진행 등의 계획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황상익(서울대), 김윤자(한신대), 신상전(덕성여대), 유초하(충북대), 신광영(중앙대), 김서중(성공회대)교수 등이 참석했다. 신광영교수는 ≪요즘 일본의 역사왜곡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언론의 왜곡 문제는 역사왜곡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일본의 역사왜곡은 주로 과거를 왜곡하는 것이다. 하지만 언론의 왜곡은 뉴스를 왜곡하는 것으로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왜곡하는 것이다. 이는 더욱 중차대한 문제다.≫

다음은 민교협의 ≪조선일보 구독 거부와 언론개혁 촉구 선언≫ 전문이다. 김서중교수(성공회대)는 ≪개강 이후에는 회원 뿐 아니라 우리의 뜻에 동의하는 교수들에게도 서명을 받아 공동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민교협 성명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일부 수구언론의 반개혁적 왜곡편파보도와 논조를 접하면서 사회민주화와 교육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온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는 조선일보에 대한 구독거부 운동에 동참할 것임을 선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민주화에 역행하는 언론들의 보도 행태가 우리 사회의 발전을 매우 지체시키고 있음을 심각하게 느끼고, 사안별로 그 오류를 지적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왜곡 편파 보도가 일시적이고 간헐적인 문제가 아님을 다시 인식하고 수구언론을 선도하고 있는 조선일보에 대한 구독거부 운동을 벌이고자 한다.

우리는 조선일보가 일제 강점기 시절 창간된 이후 특정 시기에 조선일보 기자들의 노력에 의해 사회에 기여한 역사가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그들의 숭고한 투쟁을 지켜나가기는커녕, 방응모 씨가 인수한 이후 지속적으로 권력과 야합해왔다.

일제 강점기 말기에 보여준 친일행태, 박정희정권의 압력에 굴복해 민주화 운동을 하는 기자들을 해직시킨 사건, 광주민주화항쟁에 대해 보여준 왜곡보도,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에 대해 보여준 치욕적인 칭송 보도 행태, 반공을 빌미로 국가혼란을 야기시켰던 평화의 댐보도사건, 정치권력을 창출한다고 보여주었던 왜곡된 선거보도행태 등은 조선일보라는 신문의 성격이 어떠한가를 명백히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렇다 하더라도 21세기를 맞이하여 조선일보가 과거의 왜곡보도와 논조를 반성하고 우리 나라의 미래 발전을 위해 새로 태어난다면 화해와 용서의 차원에서 과거를 묵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본다. 문제는 최근까지 보여주고 있는 조선일보의 행태이다. 민교협은 지금까지도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조선일보를 구독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최근 현안들에 대한 수구언론의 보도태도를 접하면서 참담함을 느끼지 안을 수 없다. 구조조정과 신자유주의경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동계의 파업은 물론, 민주화에 질곡으로 작용했던 국가보안법개폐운동을 비롯한 각종인권운동, 우리 사회의 근본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인 사학비리를 해결하려는 사립학교법개정운동,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국립대발전계획에 대한 반대운동 등에 대해 일부 언론은 철저히 반개혁적 태도를 견지하였다. 본질을 벗어나 결과만을 가지고 왜곡하거나, 반개혁적 집단의 주장만을 전달하고 개혁적 요구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사회의 성숙된 발전을 가로막는 중요한 장애요인이 언론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또한 최근 언론사 세무조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한 수구언론의 후안무치한 반응은 언론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도 무너뜨리고 있다. 자신들의 명백한 탈법행위 조차도 신성한 ≪언론자유≫의 이름을 빌려 방어하고 있는 수구 언론을 보면서, 그들이 그들에게 부여된 사회적 기능을 조금이라도 인식하고 있는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언론이 아닌 다른 집단이 그들과 같은 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들은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묻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왜곡보도의 선두에 있는 조선일보의 구독을 거부하는 운동을 펼치고자 한다. 동시에 구조와 제도적 대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언론개혁운동에도 동참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언론들이 사회발전에 역행하는 걸림돌이 되기보다는 언론종사자들이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이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언론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교협 1500여 회원들은,

첫째, 조선일보 기고 · 취재 · 인터뷰 거부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둘째, 조선일보 구독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조선일보 구독거부운동을 권유해나갈 것이다.

셋째, 언론개혁 분위기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 국민적 의제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각종 공론의 장에서 언론개혁의 정당성을 주장해나갈 것이다.

넷째, 개강 이후 이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과 언론개혁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해나갈 것이다.

2001년 7월 30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2001/07/30 오후 11:04:47

≪피서가서도 ≪조선≫거부운동 하겠다≫

공공연맹, 조선 구독거부 선봉대 2백명 결성

≪파업≫과 ≪생산력 및 경제활성화≫는 반비례라는 언론의 보도태도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집단이지만 적극적으로 대언론투쟁에 나서지는 않았던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

이들이 지난 달 26일 조선일보 구독중단운동을 선언한 뒤 실제 20일 만인 7월 16일 59개 사업장에서 202부 구독을 중단하고, 연이어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들이 구독중단 선언을 발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오늘 조선일보사 길 건너편에서는 민주노총산하 공공연맹이 기자회견을 열고 ≪10만 조합원 구독거부운동을 끈질기게 펼쳐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왜곡보도신문이 ≪언론탄압≫운운하는 건 최대의 희극

이들은 ≪6·12 연대파업에서 노선일보가 노사관계를 왜곡 보도함으로써 건전한 노사관계의 형성을 방해했다.≫며 ≪천문학적인 금액의 세금포탈혐의에 따른 검찰조사에 대해 ≪언론탄압≫운운하는 조선일보의 작태는 21세기 한국사회 최대의 희극이다≫고 말했다.

이날집회에서 이들은 ≪조선일보 구독거부 선봉대 200여명≫을 조직해 8월31일까지 1차적으로 구독거부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피서지를 십분활용해 조선일보 구독거부동참 운동 할 터

이들은 8월 바다, 산, 강등의 각종피서지, 재래시장 등을 찾아다니며 조선일보 구독거부 운동동참을 촉구하고, ≪조선일보 끊는 방법≫이란 글자가 새겨진 부채 10.000개를 시민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또, 전국 지하철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대자보를 부착하고, 공공연맹산하 고속도로 휴게소, 항공사 등 직접 신문을 판매하거나 나누어주는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판매금지와 배부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완전 오보도 정정하지 않는 후안무치한 조선일보 고소할 수밖에

한편, 공공연맹은 오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방상훈 조선일보사장 등 3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요지는 지난 6월 19일자 조선일보 3면 ≪노사 새로 시작하자≫라는 제하의 기획연재 기사에서 ≪12일 민주노총 산하 공공연맹이 ≪파업전야제≫를 가진 서울역 앞은 온통 쓰레기로 뒤덮여 버리기도 했다≫는 오보를 냄으로써 공공연맹 조합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것.

이들은 ≪그날 집회가 끝난후 자발적으로 전단지들을 모았으며, 공공연맹에서 30만원을 지불한 용역을 통해 청소를 했다≫면서 청소용역 지급증 사본을 첨부하기도 했다.

또 6월 20일 문제의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중재신청을 했지만 정정보도를 한 다른 언론사들과 달리 조선일보는 ≪직접현장에 나가지 않고 남대문 경찰서 출입기자에게 확인했는데 잘못이 있다면 바로잡겠다≫고 잘못을 시인하고도 정정보도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대한항공조종사, 한국전력기술노조는 중앙, 동아도 절독

오늘까지 집계에 의하면 공공연맹만 147부가 구독중단된 상태다. 특히 공공연맹산하 대한항공조종사, 한국전력기술노조는 조선일보외 중앙31부, 동아24부를 절독해 눈길을 끈다.

한편, 지난 19일에는 보건의료노조가, 20일에는 민주택시연맹이, 24일에는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가 조선일보구독거부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지난 13일 대의원대회에서 채택한 ≪조선일보 구독중단 운동방침 특별결의문≫을 통해 절독외에도 △사업장 조선일보 기자출입금지 및 취재, 인터뷰 사절, △노사협의회를 통한 조선일보 광고게재금지, △왜곡·편파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신청 및 민형사소송방침 등을 세부 행동지침으로 정하기도 했다.

조선반대 대규모 대학생 시위 열린다

전대기련, 편집장단 회의 통해 ≪조선반대 투쟁≫확정

전국 9개 도시에서 조선일보 반대 거리시위와 ≪조선일보 평생구독거부 선언운동≫을 진행해 6천여명의 시민학생들의 호응을 얻으며 안티조선 운동의 든든한 주력부대로 떠올랐던 전대기련. 그 전대기련이 하반기에도 만만치 않은 안티조선운동을 계획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0일(금)부터 22일(일)까지 유성 통계연수원에서 진행된 전대기련 전체표자대회(각 대학신문사 편집장들로 구성된 회의)에서 50명에 이르는 전대기련 소속 편집장들이 모여 상반기 전대기련의 핵심사업이었던 조선일보 반대운동에 대해 평가와 하반기 사업계획에 대한 뜨거운 토론이 벌어졌다.

안티조선운동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항공대 편집국장 김재성군은 ≪지금 당면 현안으로 떠오르는 신문개혁투쟁과 조선일보반대투쟁은 결코 떨어져 있는 사안이 아니다. 족벌언론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이때 조선일보반대투쟁과 신문개혁투쟁을 밀접히 결합시켜 나가자≫고 주장했다. 또 각 학교 학생회와 함께 학교 도서관에서 조선일보를 몰아내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대기련은 8월 초 조선일보 등 비리사주소환을 앞둔 시점에서 7월 31일(화) 진행되는 여름총회를 서울서 개최하고 다음날인 8월 1일(수) 프레스 센타 앞에서 신문개혁국민행동과 함께 족벌사주처벌과 신문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아울러 전대기련 서울지역은 연세대, 서울대, 고려대 안티조선 모임 등과 함께 지하철 선전전에 나서기로 해 방중에도 여전히 조선일보반대의 함성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전대기련은 27기 전체대표자대회를 맞아 고윤정의장 명의로 이러한 결정을 담아 성명을 발표했다.

서유상 기자 swpress1@hanmail.net



긴급체포된 충청지역 한총련 대의원들 풀려나

충남대 부회장, 구속영장 신청도 기각

25일 각 지역 보안수사대로 자진출두한 충청총련 대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 현행법 상 자진출두한 용의자에 경우 24시간 내에 조사를 마치고 내보내야한다. 그러나 경찰 측은 조사중이던 대전 지역 대의원들에게 긴급체포령을 내려 26일 8시경부터 48시간 동안 대전중부경찰서에 억류시켰다. 긴급체포령은 살인, 무기소지 등의 혐의가 있는 중형의 용의자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만 경찰 측은 이러한 것을 무시하였다.

이러한 경찰의 행동에 대해 안준영(충남대 경상대 부학생회장)군은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고 한총련의 현 통일정세에 부합되는 투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경찰은 수세에 몰리고 있다≫며 ≪자진출두한 대의원들을 그냥 내보내주게 되면 그것은 곧 이적규정과 국보법을 부정하고 한총련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김희종(충남대 사회대 학생회장)군과 고진호(법과대 학생회장)군이 27일 7시 경 풀려났다. 그러나 박성운(충남대 부총학생회장)양과 박병철(경상대 학생회장)군에게는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

김희종군은 조사과정에 대해 묻자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걸 느꼈다. 아마 서울지역처럼 면담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다. 그리고 이번 9기 한총련에서의 10대 강령 중 ≪3대원칙에 근거한 6.15공동선언 이행≫ 조항을 3대헌장의 수정이 아니냐며 추궁하였다≫라며 경찰 측의 터무니없는 조사에 대해 비판하였다.

그리고 취조 과정에서의 대의원 활동여부에 대한 물음에 ≪출범식, 대의원 대회 등 우리의 활동에 대해 당당하게 인정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풀려났다≫라 하였다. 더 이상 국보법이 한총련 활동을 얽매지 못하는 사문화된 법이라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28일 검찰에서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 오후 3시 경 충남대 부총학생회장 역시 풀려났다. 그러나 경상대 학생회장은 연대항쟁 때의 구속전과로 인하여 구속이 결정되었고 구속적부심 심사를 남겨놓은 상태이다.

순천향대, 고대서창 인문대학생회장, 여학생회장 역시 혐의 불충분으로 풀려났다.

충남대, 김현중기자 ramp12@hanmail.net
2001-07-28 19:59:00

신문개혁과 조선일보 반대투쟁을 결의하는 전대기련 성명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여겨졌던, 그 누구도 이길 수 있으리라 감히 말하지 못했던 거대 족벌 언론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요즈음 하루하루 승리의 가능성을 확신하고 있다. 일제시대부터 분단, 독재와 반민주, 반통일 이데올로기가 판치는 비뚤어진 한국사회 속에서 구부러져 왔던, 아니 왜곡된 사회를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언론에 대한 전국민적인 각성과 분노의 함성이 거세지고 있다.

얼마전 민주노총이 지긋지긋한 조선일보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전면전을 선포하고 공식적인 절독운동을 선포한 이래 전국의 3만여 택시 노동자들이 ≪움직이는 조선일보 반대 선전차량≫이 되어 전국을 누비고 있으며 지하철 노조와 철도 노동자, 병원노동자들도 이에 가세했다. 천주교에서도 매주 주보와 설교를 통해 언론개혁과 조선일보를 비롯한 족벌언론 반대의 내용을 주보와 신부님의 설교를 통해 천만 신자들에게 알려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들불처럼 사회 각지로 번져나가고 있는 신문개혁과 조선일보반대의 요구는 역으로 그 동안 우리민중들이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족벌언론들에게 어떻게 당해왔는가, 그리고 신문개혁과 조선일보 반대가 얼마나 절박한 요구이며 동시에 또한 얼마나 정당한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이번 족벌언론들의 세무조사 결과에도 보아지듯, 방상훈을 비롯한 이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훔친 것도 모자라 앞에서는 IMF이후 길거리로 내몰리는 서민들을 걱정하는 척 하면서 뒤로는 우리 부모님의 피땀어린 돈을 훔쳐내 그들의 사기꾼적 본모습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그렇기에 각계의 시민사회단체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문개혁과 조선일보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을진대, 이들은 ≪언론탄압≫이라면서 뻔뻔하게도 미(美)의회의 편지까지 끌어오면서 우리 국민과 정부를 거리낌없이 미국의 ≪내정간섭≫이 필요한 존재로 전락시켰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이문열 등과 손맞잡고 구시대적 유물인 ≪색깔론≫, ≪지역주의≫ 등을 조장하며 그동안 써왔던 식상한 방법들로 여느 때와 다름없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대충 넘어가려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를 비롯한 동아, 중앙 등 족벌언론은 이번 사태를 명확히 직시해야 한다. 이미 국민들은 신문을 개혁하고 수구족벌언론 조선일보를 반대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6.15공동선언을 맞아 하루가 다르게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한반도의 통일 분위기가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직시하기 시작했다.

지난 상반기동안 조선일보 반대투쟁을 선봉에서 이끌어왔던 전대기련 2천 기자들은 우리 사회의 예비 언론인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국민의 자유로 되돌리는 신문개혁이 지상 절명의 과제이며 역사를 바로세우고 우리사회의 민주화와 남과 북이 하나되는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해 가장 악랄하게 수구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선일보 반대투쟁이 갖는 의의를 다시금 확인한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4천만 국민과 함께하는 견고한 연대투쟁을 다짐하며 대학사회에서 조선일보를 실질적으로 몰아내기 위해 백만 학우와 함께 하는 신문개혁과 조선일보 반대 투쟁을 힘있게 벌일 것임을 다시 한 번 결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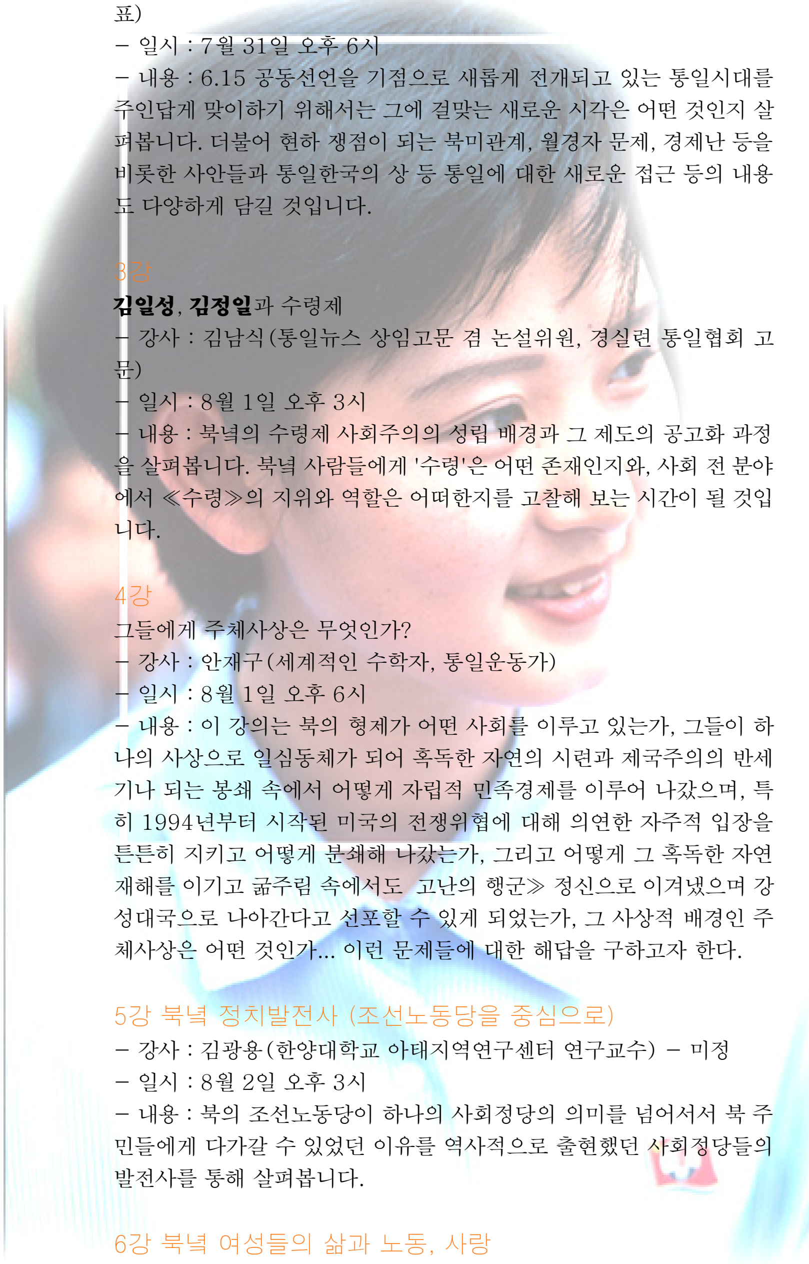
2001년 7월 21일

27기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의장 고윤정





연대총학, 통일대토론회 개최



연세대학교 38대 총학생회와 월간지 ≪월간 민족21≫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통일연대, 범민련 남측본부, 한총련, 통일뉴스 및 유뉴스 공동후원으로 오는 31일부터 8월3일까지 4일동안 연대교정에서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의 행사일환으로 ≪북녘 바로알기를 위한 통일강좌≫행사를 개최한다. 주관처가 발표한 행사일정과 안내를 전재한다.

개막특강

내가 본 북녘, 북녘 사람들
- 강사 : 최규엽(민주노동당 자주통일위원장)
- 일시 : 7월 31일 오후 3시
- 내용 : 북녘 사회를 직접 경험하신 강사님을 통해 북녘 사회와 사람들에 대한 생생한 체험을 듣고 북녘 사회의 진면모를 세심하게 살펴봅니다.

2강

통일시대의 북한학
- 강사 : 강정구(동국대학교 교수, 민화협 공동의장, 통일연대 공동대표)
- 일시 : 7월 31일 오후 6시
- 내용 : 6.15 공동선언을 기점으로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통일시대를 주인답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새로운 시각은 어떤 것인지 살펴봅니다. 더불어 현하 쟁점이 되는 북미관계, 월경자 문제, 경제난 등을 비롯한 사안들과 통일한국의 상 등 통일에 대한 새로운 접근 등의 내용도 다양하게 담길 것입니다.

3강

김일성, **김정일**과 수령제
- 강사 : 김남식(통일뉴스 상임고문 겸 논설위원, 경실련 통일협회 고문)
- 일시 : 8월 1일 오후 3시
- 내용 : 북녘의 수령제 사회주의의 성립 배경과 그 제도의 공고화 과정을 살펴봅니다. 북녘 사람들에게 '수령'은 어떤 존재인지와, 사회 전 분야에서 ≪수령≫의 지위와 역할은 어떠한지를 고찰해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4강

그들에게 주체사상은 무엇인가?
- 강사 : 안재구(세계적인 수학자, 통일운동가)
- 일시 : 8월 1일 오후 6시
- 내용 : 이 강의는 북의 형제가 어떤 사회를 이루고 있는가, 그들이 하나의 사상으로 일심동체가 되어 혹독한 자연의 시련과 제국주의의 반세기나 되는 봉쇄 속에서 어떻게 자립적 민족경제를 이루어 나갔으며, 특히 1994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전쟁위협에 대해 의연한 자주적 입장을 튼튼히 지키고 어떻게 분쇄해 나갔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혹독한 자연재해를 이기고 굶주림 속에서도 고난의 행군≫ 정신으로 이겨냈으며 강성대국으로 나아간다고 선포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 사상적 배경인 주체사상은 어떤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한다.

5강 북녘 정치발전사 (조선노동당을 중심으로)

- 강사 : 김광용(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연구교수) - 미정
- 일시 : 8월 2일 오후 3시
- 내용 : 북의 조선노동당이 하나의 사회정당의 의미를 넘어서서 북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이유를 역사적으로 출현했던 사회정당들의 발전사를 통해 살펴봅니다.

6강 북녘 여성들의 삶과 노동, 사랑

- 강사 : 김귀옥(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 경남대 북한전문대학원 객원교수)
- 일시 : 8월 2일 오후 6시
- 내용 : 이 주제는 여성을 특화시켜 그들을 북녘 사회와 분리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북녘 여성을 통해 북녘이라는 사회를 접근하고 이해하기 위해 나름대로 기획한 의제이다. 또한 정치 일변도로 북녘을 이해하려는 그간의 접근을 성찰하며 인간 중심으로 접근하기 위해 또 하나의 모색이기도 하다. 그들의 삶, 노동, 사랑 등을 통해 북녘 사람이나 사회를 바라볼 때 그간 가려진 북녘 사회의 다른 모습이 우리 앞에 등장할 것이다. 아마 우리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체제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너무나 비슷하여 어리둥절하게 될 사람들, 우리의 잃어버린 반쪽을 만나게 될 것이다.

7강 북녘의 민족주의

- 강사 : 한홍구(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 일시 : 8월 3일 오후 3시
- 내용 : 민족문제는 아시아권의 공통의 화두이며 특이나 일제 식민통치를 겪은 우리 민족에게는 첨예한 화두로 자리잡혀 있습니다. 북녘에서는 이러한 민족문제를 어떻게 대해왔으며, 민족개념을 어떤 범주로 정립해왔는지를 알아봅니다.

8강 통일대토론회

- 주제 : 연합제와 연방제의 합치점에 관해, 6.15 공동선언의 실천과제, 통일시대의 화법
- 형식 : 주제 발제 이후 패널토론 진행, 청중의 질문에 대한 응답, 자유토론
- 일시 : 8월 3일 오후 6시
- 패널 : 추후확정

▣ 수강료

개별강좌당 1, 000원

8강 전체수강시 5, 000원

2. 부대행사

1) 도서할인전
- 주체 : 통일연세 38대 총학생회, 연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 판매도서 : 강사분들의 저작을 비롯한 통일관련 서적
- 할인율 : 15% - 20%
- 일시 : 2001년 7월 31일 ~ 8월 3일
- 장소 : 연세대학교 신상대 지하 로비

2) 사진으로 보는 북녘사람들
- 주체 : 통일연대, 통일연세 38대 총학생회
- 기간 : 200년 8월 1일 ~ 4일
- 장소 : 연세대학교 민주광장, 신상대 지하 로비

3) 북녘 바로알기 선전거리
- 주체 : 통일연세 38대 총학생회
- 기간 : 2001년 7월 말 ~ 8월
- 장소 : 연세대학교 민주광장

4) 북녘 물품판매
- 주체 : 통일연세 38대 총학생회
- 기간 : 7월 31일 ~ 8월 3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공동주최 : 월간 민족21, 통일연세 38대 총학생회
후 원 : 연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통일연대, 범민련 남측본부
한총련, 통일뉴스, 유뉴스(UNEWS)
문 의 : 통일연세 총학생회 (2123-3657, 3641)

민족의 주체적 역량을 마련할데 관한 사상

구국의 소리 7월 22-23일

안녕하십니까.

아시다시피 사상이론의 거장이시고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김정일** 영도자님께서는 나라의 분열로 해서 민족이 겪고 있는 불행과 고통을 두고 그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시면서 민족의 주체적 역량을 마련해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김일성**주석님의 유훈을 받들어 조국통일위업을 자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족의 주체적 역량을 튼튼히 마련해야 한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영도하고 계십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조국통일위업을 자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민족의 주체적 역량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민족대단결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 담보이다.≫

그럼 민족의 주체적 역량을 마련할데 관한 사상의 독창성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건 무엇보다도 민족의 주체적 역량을 튼튼히 마련함으로써 민족의 숙원인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가질수 있게 한다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조국통일위업을 자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왜 민족의 주체적 역량을 마련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건 바로 조국통일의 직접적 담당자가 다름아닌 우리 민족자신이고 그 누구도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민족을 대신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는 이남에 대한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하나의 민족으로써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 문제입니다. 조국통일은 이처럼 우리 민족자체의 문제이고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인만큼 조국통일의 주인, 그 직접적 담당자는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통일을 우리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민족자체의 힘으로 이룩하기 위해서는 온 겨레가 굳게 단결해서 통일의 주체적 역량을 튼튼히 마련해야 하는 겁니다.

민족의 주체적 역량을 마련해야할 당위성은 다음으로 온 민족이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똘똘 뭉쳐 조국통일의 주체적 역량을 튼튼히 마련해야 내외 분열주의세력의 반통일책동을 짓부수고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가 양단되고 그것이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는 근본원인은 바로 내외분열주의세력의 반통일책동에 있습니다. 그런만큼 분열주의세력의 온갖 책동을 짓부수고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이룩하기 위해서는 온 민족이 굳게 단결해 조국통일의 주체적 역량을 튼튼히 마련해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온 민족이 대단결해서 조국통일의 주체적 역량을 꾸준히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온 민족이 대단결해서 조국통일의 주체적 역량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뒤로 미루고 민족공동의 이익을 앞에 내세우며 그에 기초해서 단결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조국통일위업은 우리 민족내부의 그 어떤 계급적 모순이나 제도상의 대립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민족적 위업입니다. 그런만큼 민족구성원 모두는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뒤로 미루고 민족공동의 이익을 앞에 내세우며 그에 토대해서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해야 합니다. 원래 민족을 떠난 계급이나 계층이 있을수 없고 민족의 자주성이 실현되지 않고서는 민족구성원들의 자주성도 보장될수 없습니다. 더욱이 조국통일이 민족지상의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어느 계급이나 계층도 자기의 이해관계를 민족공동의 이익보다 앞세워서는 결코 안됩니다. 오로지 민족공동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그에 토대할때만이 민족적 대단결을 이룩할수 있고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성취할수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남과 북에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과 북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아무리 크다해도 유구한 역사를 통해 형성되고 공고발전된 우리 민족의 민족적 공통성보다는 더 클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만큼 민족적 공통성과 민족공동의 이익을 앞에 내세우고 다같이 조국통일을 지향해 나선다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서 얼마든지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해 나갈수 있다고 봅니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민족대단결의 사상적 기초에 관해서도 명백히 밝혀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조국애와 민족애는 민족구성원들의 공통된 사상감정이고 민족적 단결의 사상적 기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정으로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남에서 살건, 북에서 살건, 해외에서 살건 모두가 사상과 이념, 신앙과 정견, 계급과 계층의 차이에 관계없이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굳게 단결해야 합니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남과 북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서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대업을 이룩하기 위해 힘을 합쳐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민족적 양심을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해 나서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상과 신앙을 가졌건 또 그가 자본가이건 군장성이건, 집권상층에 있건 관계하지 않고 함께 손잡고 나갈것이라고 천명하셨습니다. 열렬한 조국애와 뜨거운 민족애가 담긴 **김정일**영도자님의 이같은 대용단은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 발표이후 내외에서 높아가고 있는 통일열기가 그대로 웅변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앞으로도 민족대단결을 위해서는 애국, 애족, 애민의 광폭정치를 변함없이 실현해 나갈 의지를 명백히 하셨습니다. 애국을 지향해서 통일성업에 나서는 모든 정당, 단체, 모든 사람들의 사상과 이념, 신앙을 존중하고 그들과 연합해 나감으로써 민족앞에 지닌 의무와 신의를 지킬것이라고 간곡히 지적하셨습니다.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는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제시하신 민족대단결사상과 이론, 노선과 방침을 통해서 가장 뜨거운 조국애와 민족애, 그리고 넓은 도량과 포옹력을 지니신 그분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해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밝혀주신 민족의 주체적 역량을 튼튼히 마련할데 관한 사상을 통해서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자주적으로 이룩해 나가시려는 그분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더욱 깊이 절감하게 됩니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제시하신 민족대단결사상과 노선은 가장 정당하고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해서 오늘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의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받아들이고 그분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라 민족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적극 나서게 하고 있습니다.

구국의 소리
1053Mhz, 3480, 4120, 4450, 4557, 6010khz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윤정원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있은 역사적인 평양상봉을 통해 6.15선언이라는 ***를 이뤄냈는데요. 이것은 민족통일과 평화, 화해, 협력에 대한 이정표가 새워지고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에선 일대전환적 국면이 열리게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공동선언이 만족스럽게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건 내외여론의 일치한 평가가 아닙니까. 물론 올들어 금강산에서 분단이후 처음으로 남북정당단체들의 통일대토론회와 노동자, 농민들의 통일축제가 잇따라 진행되어서 겨레의 통일의지를 내외에 크게 과시했습니다만은 다른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사업은 잘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내외에서는 그 원인에 대해 제나름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정확히 조명해 봤으면 합니다.

윤정원 : 네,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이 우리 민족의 기대와 요구에 걸맞게 잘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될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걸 크게 두가지로 분석해보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선 6.15공동선언이 만족스럽게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부시미행정부의 그릇된 처사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6.15공동선언이 발표되었을때 미국정부당국자들은 그에 지지를 표시하면서 공동선언이 잘 이행되도록 저들도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지난 10월 조미공동성명으로 한반도 평화보장체제와 북미간의 관계개선을 협의하려 했던겁니다. 아울러 조미제네바협의를 이행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어요. 실제로 클린턴정부는 그 이행을 위해 이북과 해당분야에서 협상도 했고 다소 **적인 대북조치를 취했어요. 그런데 부시정권이 들어앉으면서 이 모든 것이 중단되고 개선조짐을 보이던 북미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사회자 : 정말 실망스러운 사태발생이라고 아니할수 없는데요. 이렇게 되게 된건 바로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때문이죠?

윤정원 : 그렇죠. 부시미행정부는 일반적 안보불가론, 엄격한 상호주의론, 철저한 검증론, 평화선언중단론, 재래식무기 감축론, 북을 빌미로한 미사일방어체제구축추진론, 대량살상무기비확산을 최우선 대상으로 한 북한론 등을 들고 나오면서 그것을 대북정책기조로 삼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북정책기조를 한마디로 평가하면 북을 고립약화시키고 무장해제시킨 다음 힘으로 손쉽게 소멸하겠다는 건데 이런데로해서 부시행정부는 집권첫날부터 선행정권이 약속한 모든 사안들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그 책임을 파렴치하게 이북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이북과의 합의를 어떻게 이행하지 않고 있는가 하는건 바로 조미제네바합의에 의해 미국이 2003년까지 완공해 북에 넘겨주게 된 2메가와트급 경수로발전소건설의 의도적인 지연과 매년 북에 제공하게 되어 있는 50만톤 중유공급중지, 대북경제제재 해제약속불이행, 이북을 핵선제공격 안한다는 미국정부의 공식**이 없는 것 등이 그 대표적 사례들이라고 봅니다.

사회자 : 미국은 저들은 이땅에 1천여개의 핵탄을 비롯해서 엄청나게 많은 각종 현대적인 살인무기들과 근 4만명의 저들의 침략군을 항시 배치해놓고도 부족해서 주한미군과 국군의 전력을 계속 증강하면서 도리어 이북을 보고 순수방어용 재래식무기까지 감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될말입니까?

윤정원 : 주한미군의 전력증강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미국호전계층은 이 땅에 침략미사일발사대들과 헬기, 심지어 현대적인 요격미사일을 30기나 장착한 이지스함 두척을 이북에서 20에서 50킬로미터 떨어진 근해에 배치하려하고 있잖아요. 미국의 이북죽이기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6.15공동선언이 제대로 이행될수 있겠습니까. 사실 원래 미국호전세력들은 우리 남북이 화해협력하며 손을 잡고 나라를 통일하는 것을 원치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저들이 이 땅에서 손을 떼야하고 아시아침략전략을 이행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예요. 그래서 미국 강경보수세력들과 호전분자들은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는 그 자체를 달가와하지 않았죠.

6.15남북공동선언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다음으로 국내분단수구세력의 반통일책동때문이라고 정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회창, 김영삼을 필두로 하는 국내분단수구세력은 지난해 6.15공동선언이 발표되자 그것부터 시비하며 반대했다는 건 세상이 다아는 사실아네요?

사회자 : 네, 그렇습니다. 이회창은 6.15공동선언의 조항마다 시비를 걸면서 반대해 국민들의 비난을 받았죠. 한나라당 이회창총재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국내보수언론들을 동원해서 6.15공동선언을 시비하며 공동선언의 이행을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정부가 이북의 전략에 끌려간다,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한다, 철저히 검증해야한다고 하면서 남북공조보다 한미공조, 외세와의 공조를 우선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떠들어대서 국민들을 분격케 했고 또 통일훼방꾼, 없어져야 할 민족반역자라는 응당한 비난을 받았던 겁니다.

윤정원 : 그렇죠. 이회창 등 분단수구세력들이 6.15공동선언을 폐기하고 남북관계를 과거로 환원시키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어요. 그들이 떠들어대는 이른바 북한일변론, 북한퍼주기, 과거사사죄론 등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논리와 주장을 펴면서 어떻게하나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하지 못하게 하려고 책동을 하고 있습니다.

분단수구세력이 들고 나온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가 하는 것은 이른바 북한퍼주기주장만 따져봐도 잘알수가 있어요. 그들은 현정권이 무턱대고 이북에 퍼주면서 그에 해당한 대가를 받지 못해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시비하고 있는데 실제로 따져보면 현정권의 대북지원액은 김영삼정권때의 67.8%밖에 안됩니다. 민간단체들의 지원을 감안하면 그보다 훨씬더 적어요. 물론 앞으로 여러 가지 지원이 있을수 있겠지만 그것이 다 공짜로 주는게 아니잖아요. 장기차관이나 이북어장에서의 고기잡이 등으로 그보다 더 많은 값을 받게 되요. 그런데도 분단수구세력들은 현정부가 퍼주기만한다고 비난하며 대북경제협력과 교류를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자 : 네,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잖아요. 사실 당국이 퍼주기만 하는 것은 미국에 있는 군사복합체죠. 군전력증강5개년계획에 무려 30조원, 내년초로 예정된 차세대전투기와 차기대북미사일, 육군 차세대공격용 헬기도입 등에만도 무려 10조원대의 국민혈세를 퍼붓게 되는데요. 실제 퍼주기는 문제삼지 않고 통일**를 퍼주기로 왜곡해서 민족의 강성부흥의 길을 가로막는 세력이 바로 대북퍼주기론을 유포시키고 있는 국내반통일수구세력인겁니다.

윤정원 : 그렇습니다. 이같이 미국부시정권의 대북압살책동과 국내반통일보수세력의 범죄적 책동 때문에 우리 민족과 세계 진보적민중들이 ***바라는 6.15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이 **지 못하고 있고 또 이 때문에 제2차 남북정상회담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시대의 흐름과 세론의 요구를 무시하고 대북강경정책에 계속 매달리며 우리 민족의 6.15공동선언이행에 제동을 걸지 말아야 하고 동시에 이회창을 비롯한 국내반통일보수세력도 민족의 통일대행진을 가로막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할거예요. 만약 우리 민중과 겨레의 요구와 충고를 무시, 거역하면서 종전대로 나간다면 우리 민족과 세계의 보다 큰 항의와 규탄을 면치 못할겁니다.

사회자 :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조선일보구독거부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회자 : 안녕하세요.

윤정원 :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지금 경향각지 각계민중들속에서 조선일보구독거부움직임이 갈수록 거세게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 얘기나눴으면 하는데요. 먼저 조선일보구독거부운동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윤정원 : 그러죠. 조선일보거부운동은 연초부터 급속히 확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그 운동이 범국민적 차원으로 번지면서 보다 심도있게 벌어지고 있죠.

지난 22일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는 서울 태평로 조선일보사앞에서 조선일보구독반대집회를 열었어요. 이에 앞서 지난 16일 민주노총산하 사무금융노조가 조선일보구독거부선언을 발표한데 이어 19일에는 공공의료노조가, 그리고 20일에는 택시노조가 같은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소속 대학생기자들을 포함해서 대학생 8천여명이 조선일보반대선언을 했습니다. 한편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언론개혁과 조선일보구독거부운동에 나서기로 했죠. 조선일보구독거부운동은 이외에도 다양한 양상을 띠고 각계각층속에서 매우 심도있게 벌어지고 있어요.

사회자 : 네, 독자들이 언론의 횡포를 반대해 이같이 전국적인 범국민적 차원에서 구독거부운동에 나선 예는 지금까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왜 각계민중이, 독자들이 조선일보를 반대해 나서는가 하는 겁니다.

윤정원 : 네, 그건 한마디로 조선일보가 시종일관 반역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언론은 사회의 공기이고 목탁인데요, 조선일보가 걸어온 행적을 보면 사회의 선도자가 아니라 민족내부에 불신과 대결을 조성하는 나팔수, 나아가선 범죄집단으로 되어 버렸거든요. 조선일보가 이렇게 반역의 가도만을 달려온데는 신문을 경영하는 핵심부터가 민족반역자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사회자 :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책임지고 있는 방상순, 방우영, 방일영 등 방씨일가족수족들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같은데요.

윤정원 : 네, 지금 조선일보는 사실상 이 방씨일가 족속들에 의해서 경영되고 있죠. 그런데 이 조선일보 거물급들의 행적은 매우 어지럽고 개탄스러워요.

우선 방일영에 대해 보기로 하죠. 원래 방일영의 고향은 평북도 정주인데 일제때 악질적인 친일주구의 가문에서 태어난 그는 어려서 일제를 숭상하고 친일을 하는데 발벗고 나선 특종 친일족속입니다. 방일영의 이 같은 친일체질은 그가 43년 조선일보사에서 근무하면서 여지없이 드러났는데 내선일체, 동조동근, 황국신민화를 열창하는 민족반역자들을 극구 찬양하는 글들을 대서특필한 것도 방일영이었어요. 또 반일애국투사들을 비적단으로 비방중상한 것도 다름아닌 이자였죠. 방일영의 행적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5.16쿠데타후 이후락과 가까이 지내면서 중앙정보부첩자로 전락해 무고한 주민들과 통일민주애국자들을 무참히 학살케 한겁니다.

사회자 : 방일영의 아우라고 하는 방우영 역시 그런 민족반역자, 인간추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윤정원 : 네, 같은 독초뿌리에서 돋아났으니 방우영도 형과 달리 될 수 없죠. 그도 극악한 친일분자였어요. 일제시기 그는 친일주구단체에 소속되어 반일애국투사들을 학살하는데 앞장섰습니다. 특히 그의 반역적 체질은 64년 조선일보사 사장으로 발탁되면서 더욱 노골화되었는데 방일영의 연줄로 중앙정보부의 끄나불이 된 그는 신문을 중앙정보부의 언론지침에 따라 독재정권을 비호하고 북을 헐뜯는 반공반북모략지로 완전히 전락시켰는데요. 그래서 당시 국민들은 조선일보를 중앙정보부언론지로 낙인했잖아요. 이같이 조선일보사 우두머리들이 한사람같이 모두 친일파, 민족반역자, 반북모략의 능수이다보니 그들이 만드는 신문이 어용매문지, 모략지로밖에 달리 될수가 없는거죠.

사회자 : 조선일보의 범죄행위가운데서 그야말로 참을수 없는 건 이북을 악랄하게 헐뜯는 것이고 또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을 비방하면서 그 이행에 제동을 걸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윤정원 :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조선일보의 행적가운데서 가장 악랄한 것은 애당초 동족을 동족으로 보지 않고 소멸해야 할 원수로 여기면서 반북모략행위를 일삼은 거라고 봐요. 심지어 기회있을때마다 이북의 체제까지 헐뜯으며 왜곡까지 했잖아요. 통일하고 함께 살아야할 동족을 소멸해야할 적으로 보고 그들이 의거하고 있는 보금자리마저 무너뜨리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국주의연합세력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과 연속되는 자연재해로 인해 일시 시련을 겪고 있는 이북을 두고 그것이 마치 제도탓인것처럼 왜곡하면서 외세와 같은 곡조에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자 그걸 못마땅해하면서 악랄하게 헐뜯었구요, 그리고 공동선언을 이행하는데 장애를 조성하기 위해서 온갖 책동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독자들이 조선일보를 반통일분자들의 대변지라고까지 하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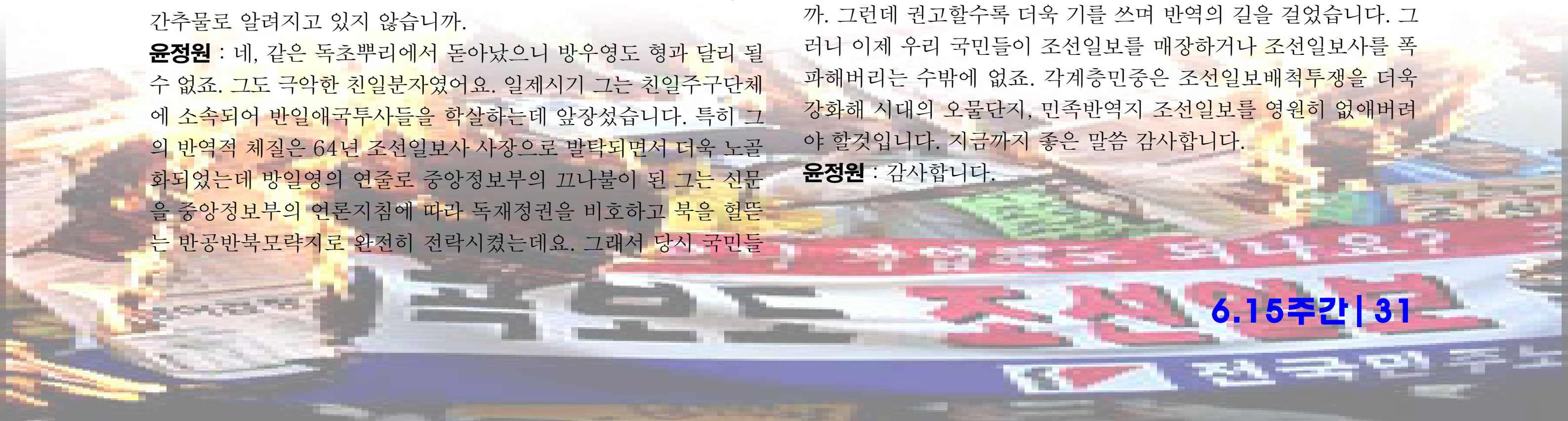
사회자 : 그렇죠. 조선일보는 언론의 본래의 사명에 어긋나게 반민족, 반민주, 반민중 행위만을 일삼으며 민주권리와 생존권을 위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마저 시비하면서 노조를 탄압하는 보도에 앞장서왔죠. 그것은 노동자들을 더욱 분격시키고 있죠.

윤정원 : 네, 그뿐이 아닙니다. 조선일보는 가톨릭교계와 김수환추기경을 직접 겨냥해 친북좌익세력이라면서 색깔론을 펴가지고 가톨릭계의 큰 반발을 샀습니다. 그런가하면 국민들의 요구에 따른 당국의 언론사세무조사를 언론길들이기다, 언론의 자유침해다 뭐다 하면서 응당 내야할 수백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저들의 범죄적 탈세행위까지 정당화하려고 책동해서 국민들의 응당한 항의와 규탄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이회창 등 반통일보수세력의 대변지역할을 하면서 못되게 나와서 우리 겨레를 더욱 분격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일제때는 일본에 붙어 천황폐하만세를 외쳤고, 또 군사독재시절에는 독재자들을 영웅시하면서 독재권력에 아부해왔고, 오늘은 겨레의 통일운동과 민중의 자주민주운동까지 악의에 차서 비난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왜 조선일보배척운동을 벌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재야단체들과 노동자, 종교인 등 각계민중이 조선일보구독거부운동을 벌이는건 천백번 정당하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것은 이회창이 조선일보를 적극 비호두둔하면서 국민들의 조선일보배척운동을 시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한가지 사실만으로도 이회창의 반역적 정체를 잘 알수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자 : 네, 정말 옳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친일친미사대매국지, 반민주반통일신문인 조선일보는 하루빨리 매장해 버려야 합니다. 우리 민중과 겨레가 조선일보에 자성할 것을 얼마나 많이 권고했습니까. 그런데 권고할수록 더욱 기를 쓰며 반역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국민들이 조선일보를 매장하거나 조선일보사를 폭파해버리는 수밖에 없죠. 각계층민중은 조선일보배척투쟁을 더욱 강화해 시대의 오물단지, 민족반역지 조선일보를 영원히 없애버려야 할것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한국변혁운동의 현 단계에서 결성해야 할 연합전선조직체는 민족민주연합전선

한백연

≪한국민민운동단체들간의 연대연합과 대규모 연합전선조직체 건설문제≫

(강조는 통일여명 편집국)

연합전선조직체의 성격은 소여시기 변혁운동의 근본과제와 구체적인 운동상황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오늘 한국에서는 사회의 자주화실현이 전반적인 변혁운동과제수행에서 관건적인 과제로 되고 있다. 그리고 군부독재는 이미 제거되었지만 반민주적 군부독재잔재들이 사회생활의 각 분야에 뿌리 깊이 남아 있어 의연히 한국사회발전의 근본걸림돌로 되고 있다. 이로부터 사회의 민주주의적 변혁을 이룩하는 것도 의연히 변혁운동의 근본과제로 남아 있다.

현실적으로 한국변혁운동에서는 1980년 광주민중항쟁이후 자주화운동이 계속 주축을 이루어 왔다.

이로부터 한국변혁운동의 현단계에서 결성해야 할 연합전선조직체는 마땅히 민족민주연합전선으로 될 수밖에 없다.

민족민주연합전선조직체의 근본특징은 자주화과제를 근본적이고도 선차적인 것으로 내세우고 그 과정속에서 민주화의 과제와 각 계급, 계층들의 요구도 해결해 나가는 연합전선조직체라는데 있다. 여기에서 자주화과제와 민주화과제의 상호관계는 전자가 기본과제, 전략적 과제라면 민주화과제는 그의 전술적 과제로서 이 두 과제를 다 수행해야만 민족민주연합전선조직체로서의 주되는 목표의 하나인 자주적 민주정권 수립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

자주화와 민주화의 양대 과제를 안고 있는 민족민주연합전선조직체는 지금까지 한국변혁운동에서 경험했던 다양한 형태의 연합전선조직체들에 비할 수 없는 광폭의 연합전선조직체이다. 따라서 한국변혁운동의 현단계에서 민민연합전선조직체를 결성하는 것은 대중적변혁운동역량을 준비하는데서 전환적인 국면을 열어 놓는 것으로 된다.

민족민주연합전선조직체는 단결과 공동투쟁의 기치로 되는 기본구호와 정치강령을 올바르게 제시해야 한다.

오늘 한국변혁운동에서 민민연합전선조직체가 제시할 기본구호는 자주화이다. 자주화구호는 한국에서 미국의 식민지지배체제를 끝장내고 민족자주정권을 수립함으로써 민족적 자주권이 완전히 실현된 자주화된 민주사회를 건설하려는 민중의 지향을 반영하고 있다.

자주화구호는 또한 한국변혁운동의 기본추이와 일치하는 구호이다. 앞에서 이미 이야기했듯이 한국의 변혁운동은 1980년 광주민중항쟁이후 자주화운동을 주축으로 해 전개되어 왔으며 그러한 속에서 그것이 한국변혁운동의 근본지향으로, 추세로 됐다.

오늘 한국민중에게 있어서 미국의 식민지지배와 간섭은 사회정치적인 자유와 권리, 더 나아가 생존권까지 억제, 유린당하는 기본적이며 주되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 미국의 식민지지배와 간섭을 끝장내지 않고서는 사회의 민주화도 조국통일도 실현할 수 없다. 따라서 민중 속에서 미국이야말로 민족, 민중이 겪는 모든 불행의 근원적인 존재라는 인식이 날로 분명해 지고 확산되고 있다. 이것은 자주화의 구호가 한국민중의 가장 근본적이며 공통적인 이익을 반영한 구호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기본구호는 문자 그대로 극히 간명하게 표현되는 정치적 목표인 것만큼 각계층 민중의 다양한 요구와 지향은 정치강령에 반영해 실현해 나가게 된다.

민민연합전선조직체의 정치강령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한국민족민주운동세력앞에 나서고 있는 3대과제인 민족자주, 민주주의, 조국통일을 현 상황에 맞게 구체화해 제기하는 것이다. 이것은 민민연합전선조직체의 총적인 활동방향과 정책목표를 명백히 밝혀 주는 것으로써 실천적으로 의미가 매우 크다.

한편 이 3대과제를 구체화하는 민족자주문제에서는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급격히 고양되고 있는 광범한 민중의 반미자주운동을 참작해 미군에 의한 주민대학살진상규명과 보상, 미군범죄근절, 미군기지사용료징수, 미군에 의한 환경파괴근절, 도심의 미군기지철수, 미군주둔비용 분담반대, ≪소파≫전면개정, 점진적 미군철수프로그램의 제시 등의 반미자주적요구들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민주화문제에서도 민중의 요구에 걸맞게 국보법의 즉각철폐, 준법서약제의 폐지, 군부정권에 복무한 정치권의 퇴출, 양심수 전원석방, 사상과 학문, 표현의 완전한 자유 보장 등 참다운 민주화를 위한 제반 요구들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통일문제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이후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민중의 조국통일열기에 맞게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지지와 그 철저한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원칙적인 내용을 제시함과 동시에 사회 각 분야에 잔존하는 남북공동선언이행에 걸림돌로 되는 일체의 반통일적 요소들, 반통일적인 수구기득권세력들을 극복할 데 대한 투쟁과업, 일체의 반통일적 행위들을 엄금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데 대한 문제들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정치강령에서는 또한 일상적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반대(노동자), 농축산물시장개방반대, 농가부채탕감, 적정농산물가격보장(농민), 한총련 이적단체규정철회(청년학생) 등 현 시점에서 각계각층 민중의 절박한 요구들을 정확히 반영함과 동시에 민노총, 전농, 한총련, 전국연합, 참여연대 등 주요 민민운동단체들과 시민운동단체들의 정치강령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렇게 함으로써 민민연합전선조직체 결성에 범민족적인 관심이 집중되게 하며 전체 민민운동권차원에서 전개되게 해야 할 것이다.

외세에 예속적이며 비정상적인 자본주의인 한국에서의 사회변혁운동의 중요 특징의 하나는 매우 폭넓은 사회계급적지반 위에서 전개되는 변혁운동이라는데 있다. 다시 말하면 노동자, 농민 대중을 위시한 청년학생, 지식인, 도시서민, 민족자본가, 애국적 종교인 등 광범한 계급, 계층이 변혁운동에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로부터 민민연합전선조직체가 망라할 대상 역시 광범위할 수밖에 없다.

민족민주운동연합전선조직체의 망라대상을 설정하는데서 근본기준은 한국사회의 자주화실현이다.

왜냐하면 한국의 사회변혁운동이 본질상 자주화운동이고 그것이 사회변혁운동의 주되는 내용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주화에 대한 입장여부에 따라 기본적으로 변혁운동추진역량과 투쟁대상이 식별되며 민민연합전선조직체의 망라대상이 규제되게 된다.

민민연합전선조직체의 망라대상은 무엇보다도 사회의 자주화를 지향하는 모든 계급, 계층과 정당, 단체들, 개별적 인사들이다. 개별적 인사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의 소속정파와 신앙, 계급출신에 제약되지 말아야 한다. 보수진영에 속한 인물이건, 진보진영에 속한 인물이건, 지주출신이건, 재벌출신이건, 군부출신이건 관계없이 반미, 반외세, 자주화의 지향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민족민주운동연합전선조직체에 망라시킬 대상으로 되는 것이다.

민민연합전선조직체의 망라대상은 또한 독재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모든 계급, 계층과 정당, 단체들, 개별적 인사들이다.

한국사회에서 민주화세력과 자주화세력은 밀착되어 있다. 이것은 한국에서의 자주화운동과 민주화운동의 밀접한 연관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한국의 민주세력은 그 안에 다수의 자주세력을 포괄하고 있다. 또

한 변혁운동의 심화발전에 따라 민주화세력의 일부가 대오에서 떨어져 나가 지배세력의 편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주민주세력으로 발전되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의 변혁운동가들속에서 사회의 자주화를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회의 자주화는 그것의 보편적인 정당성으로부터 지배세력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공식적으로는 반대하지 않고 있으며 6.15공동선언 발표이후로는 집권세력들까지도 반대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물론 자주화에 대한 해석은 교묘하게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한편 민민연합전선조직체는 자주화와 민주화의 양대과제수행을 자기의 근본사명으로 하고 있다.

이로부터 민민연합전선조직체는 당연히 민주화세력을 중요한 망라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민민연합전선조직체의 중요 망라대상은 사회시민운동세력이다.

현 시점에서 보면 미군기지철수운동, ≪소파≫개정운동 등 반미자주화운동에서 시민운동세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부 운동가들은 시민운동단체들이 강령에 반미자주화문제를 또렷하게 제시하지 않았고 실천투쟁에서 미군철수라는 근본요구를 접어 둔 채 미군범죄문제, 미군에 의한 환경파괴문제, ≪소파≫개정 같은 전술적 요구들만 제기하고 투쟁한다는 부족점만 찾으면서 연합의 대상이 못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은 협애한 편견이다. 시민운동단체들이 전술적 단계의 요구들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반미자주화투쟁을 대중적 단계에 올려 세우는데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지 못한 것이다.

또한 지난 4.13총선 당시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이 실증한바와 같이 시민운동세력의 민주화에 대한 지향은 매우 높다. 이것은 시민운동세력이 한국의 중요한 자주역량인 동시에 민주화역량이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따라서 시민운동세력은 민민연합전선조직체의 주요 망라대상의 하나로 되는 것이다.

한국의 애국적이며 진보적인 종교인들 역시 민민연합전선조직체의 주요 망라대상으로 된다.

한국의 애국적 종교인들은 역사적으로 반미자주화와 반파쑈민주화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최근년간 그들의 자주화, 민주화투쟁열의는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애국적 종교인들은 마땅히 민민연합전선조직체에 망라시켜야 할 중요한 대상으로 된다.

민민연합전선조직체에 망라시켜야 할 대상으로서 여야정당안의 진보적 정치인들에 대해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

지금 여야 보수정당 안에는 운동권출신을 비롯해 진보적 경향을 가진 인사들이 적지 않게 들어가 있다. 그 중에는 하나의 계파를 형성하고 있는 것도 있고 국회의원이나 당직자로서 개별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다. 최근 이들은 반제자주적인 입장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전 JP가 한일의원연맹 회장직에 취임한 것에 대해 JP를 한일굴욕외교의 장본인으로 규정하고 그의 즉각적인 사퇴를 제기한 사실, 여야당내 40여명의 의원들이 ≪소파≫전면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국회차원의 결의안채택을 추진하기로 한 사실들에서 알 수 있다. 여기에 지난 시기 보수파로 분류되던 의원들도 일부 참가했다.

이러한 자주적 성향의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매국노로서의 전적이 없는 한 과거를 불문하고 다 민민연합전선조직체에 망라시킬 대상으로 보고 그들과의 사업을 적극 벌여야 한다.

이상에서 이야기했듯이 민민연합전선조직체의 망라대상을 설정함에서는 최대한의 관용과 아량을 가지고 일정정도의 반미자주적 지향이나 민주적 지향을 지닌 사람이라면 차별 없이 다 받아들임으로써 명실공히 대규모 연합전선조직체로 되게 해야 한다.

모든 사회적 운동은 주체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해 발생발전한다. 연합전선운동 역시 그에 합당한 주체세력이 있어야 발전할 수 있다. 이 주체세력은 민족민주운동연합전선실현을 주동적으로 발기하고 연합전선운동의 전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연합전선운동에서 그 주체세력이 이 같은 역할을 담당 수행하려면 그것이 진보정치세력과 기층민중속에서 사회적 대표성을 인정받는 정치조직이어야 하며 민민운동권에서 상당한 정도의 위상이 인정되는 정치조직이어야 한다.

지금 한국민족민주운동권의 일각에서는 민노총이나 전국연합을 연합전선운동의 주체세력으로 거론하고 있는데 상술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합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물론 민노총과 전국연합이 민민운동세력의 연대, 연합을 위해 노력하는 것 자체는 매우 정당하지만...

우선 민노총의 경우 그것은 노동자대중의 조직이지 각계각층의 민중을 대변하는 정치조직은 아니다. 또 식민지 한국사회에서 노동계급은 기득권에서 철저히 배제된 계급으로서 변혁운동역량의 핵심적 부분이지만 그들의 투쟁이 노동대중을 비롯한 모든 진보계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는 못한다. 물론 1, 200만의 노동계급이 똘똘 뭉쳐 한국사회의 합법적인 지도역량으로 부상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민노총의 활동은 노동자대중의 제한된 계급적 이해관계의 테두리를 크게 벗어날 수 없다. 현실적으로도 그렇다. 얼마 전에 있은 서울지하철노조파업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것을 잘 알 수 있다. 당시 시민운동단체들은 수백만 서울시민의 발을 묶는 지하철노조파업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 문제로 민노총과 시민운동단체들사이에 일정한 오해와 알륵이 생긴바 있다. 이것은 민노총이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이익에만 집착함으로써 시민운동단체들을 비롯한 다른 계급, 계층의 이해관계를 포괄적으로 대변하지 못했다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 이로부터 민노총은 민민연합전선운동의 주체세력으로 충분히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전국연합은 어떠한가. 전국연합은 정치조직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민노총, 한총련, 시민운동단체들과 같은 유력한 민민운동단체들을 실질적으로 망라하지 못함으로써 한국의 진보세력에서 사회적 대표성을 갖지 못하며 또한 민민운동권에서 지도적 권위도 확실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가까운 장래에 전국연합이 민노총이나 한총련, 시민운동단체들을 망라시켜 위상을 크게 개선할 전망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전국연합 역시 민민연합전선운동의 주체세력으로는 충분히 합당하다고 볼 수 없다.

한국의 사회여건에서 민민연합전선운동의 주체세력으로 가장 합당한 것은 합법적인 진보정당이다.

본디 연합전선운동은 각이한 정당, 정파들간에 정치적 동맹을 형성하는 것이므로 그 주체세력으로는 마땅히 정당형태를 갖춘 정치조직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제도정치권 안팎의 여러 정당, 정파와의 폭넓은 정치적 연합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면정권시기인 1961년 2월 민족자주통일협의회(민자통)가 결성된바 있다. 여기에는 근 40개의 민민운동단체들과 중간혁신정당들까지도 참가했다. 당시로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대규모 연합전선조직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주체세력으로 활동한 것은 사회대중당(대표 김달호), 사회당(대표 최근우)과 같은 합법적인 혁신정당들이었다.

제반 사실들은 연합전선운동의 역사적 경험을 보더라도 그 주체세력은 정당형태의 정치조직이어야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민민운동권안에서 유일하게 정당형태를 갖춘 조직인 민노당은 아직 원내에 단 1명의 의석도 가지고 있지 못하며 그 위상이 높지 못하고 또 당의 계급구성면에서도 문제성이 있는 등 적지 않은 부족점을 갖고 있다. 이 같은 부족점에도 불구하고 민노당은 진보적인 정치이념과 자주적 민주사회건설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가진 합법적 진보정당으로서 반동보수정치에 극도의 혐오감을 느끼는 민중으로부터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다. 그리고 지난 4.13총선과 6.27지방선거를 통해 민노당은 그 어느 민민운동단체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정치적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인했다.

그러므로 앞에서 이야기한 결함들을 고쳐주어서라도 민노당을 한국사회의 모든 진보세력을 대표할 수 있는 대중적인 진보정당으로 발전시키고 그를 주체세력으로 내세워 모든 민민운동세력, 진보적 시민운동세력을 망라하는 대규모의 민족민주운동련합전선조직체를 건설해야 할 것이다.

조국통일의 지름길을 밝힌 정당한 로선과 방침

로동신문

(평양 7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 25일부 ≪로동신문≫은 하나의 조선로선과 조국통일3대원칙,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로선, 방침들은 어느것이나 다 분렬된 조선의 현실과 민족의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고 있는 가장 정당하고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통일강령이라고 지적하였다.

론설의 필자는 조선로동당의 주체적인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의 정당성은 그것이 민족의 념원과 의사, 리익에 맞는것이고 북과 남의 리해관계를 가장 공정하게 반영하고 있는데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은 불멸의 주체사상과 민족의 의사와 리익을 귀중히 여기는 민족중시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조선로동당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은 통일의 주인으로서의 전체 조선민족의 자주적인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여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조국통일위업을 조선인민자신의 손으로 민족의 념원과 의사, 리익에 맞게 완수할수 있게 하는 지름길을 밝혀 주고 있다.

조선로동당이 내놓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의 통일방도는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나라의 구체적조건에 맞으며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지 않는 방법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민족의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고 있는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방안으로 된다.

론설은 조선로동당의 주체적인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은 세계평화위업의 견지에서 보아도 정당하다고 지적하였다.

조선의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것은 아시아와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것으로 되며 자주적이고 평화로운 새 세계건설을 지향하는 세계인민들의 념원과 리익에도 맞는것으로 된다고 론설은 지적하였다.

론설은 조선로동당의 정당한 주체의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이 있고 어버이수령님의 통일유훈을 빛나게 관철해 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조국통일위업의 실현은 확정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민족대단결은 조국통일의 근본전제

로동신문

(평양 7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 24일부 ≪로동신문≫은 민족대단결을 실현하는것은 조국통일운동의 주체적성격을 살리는 문제인 동시에 통일위업완성의 기본력량을 마련하는 중대한 문제이라고 지적하였다.

론설의 필자는 조국통일위업은 조선민족의 주체적위업이며 민족자주위업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우리 민족이 조국통일의 주체로서의 사명을 다하자면 단결해야 한다.

6.15공동선언채택후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운동에서 일어 난 모든 긍정적인 변화와 성과들은 온 민족이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애국의 한마음으로 투쟁한 결과이다.

나라의 분렬과 함께 민족내부에 생겨 난 여러가지 차이를 뛰여 넘어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도 민족대단결을 실현해야 한다.

우리 민족의 대단결은 애국애족의 통일의지에 기초한 단결이다.

외세가 우리 민족의 통일과정을 막아 보려고 무분별하게 책동하고 있는 현실은 민족대단결을 더욱 절실하게 제기한다.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이며 호전적인 미제의 대조선고립압살책동은 저지되여야 하며 그러자면 민족이 단합하여 반미투쟁의 열풍을 일으켜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은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함으로써 조국통일위업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야 할것이다.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아래 뭉친 민족민주통일전선을 결성해야 한다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발췌)

어느 나라 변혁운동에서나 통일전선의 성격 문제는 심각한 근본문제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그것은 통일전선의 성격문제가 변혁의 기본 정치노선과 귀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의 통일전선운동에서는 현단계에서 형성해야 할 통일전선체가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아래 뭉친 애국적 민주세력의 연합체이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실천도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운동권의 일각에서는 아직도 우리의 통일전선운동을 계급해방론적 시각에서 제기하며 계급동맹론으로 전개하려는 경향성이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통일전선체 건설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현단계에서 우리가 정립해야 할 통일전선의 성격을 분명히 인식하는 문제는 통일전선문제를 올바로 해결하기 위한 기초적인 문제라 하겠다.

주지하다시피 통일전선은 소여 역사적 단계에서 나서는 변혁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무기이다. 따라서 통일전선의 성격은 변혁의 성격과 임무에 의해 규정되게 된다.

오늘날 우리 변혁운동은 민족해방민주주의운동이며 본질상 민족해방혁명이다. 그리고 우리 변혁운동의 기본임무는 사회의 자주화, 민주화, 민족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우리 변혁운동의 현단계에서 건립해야 할 통일전선은 한국사회의 자주화와 민주주의적 발전, 민족적 화해와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애국적 민주세력의 연합체로 되어야 한다.

물론 이같은 통일전선체의 명칭은 민족민주주의전선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부를 수도 있겠지만 당면해서 그것의 성격은 어디까지나 민족해방의 주되는 전략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애국적 민주세력의 통일전선으로 되어야지 계급해방을 위한 이른바 계급동맹으로 될 수는 없다.

계급해방투쟁을 주장하는 논자들은 반파쑈민주연합전선에 대한 이해에서도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들은 반파쑈민주연합전선에 대해 민족해방민주주의변혁을 실현하기 위한 전술적 단계에서 그 걸림돌로 되고 있는 파쑈통치를 제거하고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한 하나의 공동투쟁체로 이해하고 실천하려 는 것이 아니라 국가독점자본주의사회의 권력기구로서 독재정권을 제거하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과도적 단계의 전술적 동맹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반미자주화투쟁의 우위론을 부정하고 반파쑈투쟁우위론에 기초하여 한국사회변혁운동을 반미민족해방민주주의운동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계급해방투쟁으로 전개하려는 잘못된 견해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통일전선운동에 중핵적 문제는 한국사회의 성격을 규정하는 근본요인이 미제의 식민지 통치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척결하기 위한 반미민족해방통일전선으로 결성하느냐 아니면 그 규정적 요인을 독재정권의 파쑈통치에 두고 그것을 척결하기 위한 반파쑈계급해방통일전선으로 결성하느냐 하는 문제에 귀착된다.

이미 전술한 것처럼 한국사회성격을 규정하는 근본요인은 미제의 식민지 통치이며 이것을 척결하고 한국사회의 자주화를 실현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변혁과제도 원만히 실현할 수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 변혁의 현단계에서 건립해야 할 통일전선으로 명백히 반미민족해방투쟁을 주되는 전략적 과제로 하는 민족민주주의의 통일전선인 것이다.



6월 15일

김영호 / 구국의 소리

1년 12달 중 6월은 가운데 달
한달 30일 중 15일은 가운데 날
평양선언, 남북공동선언 발표된 그날은 목요일
목요일은 한주의 꼭 가운데 요일

신묘함이여
허리잘린 내나라 남과 북의 그 세월 잇고저
해와 달 한복판에 자리잡았나
6월 15일

천기를 타고나신 **김정일**장군님
무심한 날에조차 생명을 주시어
역사앞에 날 중의 날로 내세운다네통일시간표를 짜주신다네

마침내 통일조국의 이정표 받아안고
온 민족이 울고 웃으며
위인칭송의 서사시를 엮은 날이여
만국의 민중 박수를 보낸 날이여

내 오늘 들었네, 믿었네, 경탄했네
세계의 안테나들이 날리는 말
세계의 중심에 우리 장군님계신다
6월 15일 **김정일**충격에
지구가 흔들렸네



주체 90, 7월 22일

금강산에서 진행된 남북농민통일대회에 참가하고 돌아온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이모씨가 **김정일**영도자님을 높이 칭송했습니다.
그는 집에 찾아온 동료들에게 정말 꿈같은 나날을 보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남북농민들의 통일축제는 비록 짧았지만 그것은 남북겨레가 결코 헤어져 살수 없는 한민족임을 확인한 순간들이였고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나라의 통일을 이루려는 의지를 더욱 뜨겁게 달군 나날들이였다. 외세와 권력자들, 갖은 자들에게 당하기만 한 우리 농민들이 사람대접을 받으며 웃고, 노래한 행복한 나날들이기도 했다.
반세기를 넘는 분단역사에 처음으로 마련된 남북농민들의 통일잔치는 다 **김정일**영도자님의 덕분에 의한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이룩하려는 그분의 애국애족의 위대한 통일경륜과 의지가 아니였더라면 어떻게 그런 경사가 있을수 있겠는가. 진정 그분은 통일의 위대한 태양이시다. 앞으로 통일된 조국의 풍년****하기 위해서 **김정일**영도자님 만세를 부를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련다.

녹색연합은 19일 주한미군이 4천만평의 부지를 반환하는 대신 75만평 규모의 신규부지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미국의 요구는 한국의 안정적인 국토관리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독도수호전국연대는 2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일어업협정폐기와 어업협정의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각계에서 무기구매압력을 강요하고 있는 미국 부시행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사무금융노련과 보건의료노조에 이어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도 조선일보구독중단운동에 나섰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서거 7주기에 즈음해 나이지리아 인민민주당 전국서기가 지난 2일 당청사에서 여러 나라 신문사기자들과 회견했습니다.

파키스탄 신문 바르치스탄 타임스 14일자가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해설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신문 자카르타 포스트 16일자가 왜곡된 역사교과서라는 제목의 사설을 발표해 역사를 똑바로 대할 것을 일본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지난 16일 이따르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뿌찐대통령이 이탈리아신문과의 회견에서 군비경쟁을 부추기는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주체 90, 7월 24일

충청북도 충주시에 사는 김영만씨가 **김정일**영도자님을 높이 칭송했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남북농민통일대회의 상황을 담은 비디오를 보고 감동을 금치 못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통일대회는 분단이래 처음있은 남북농민들의 역사적인 만남이였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 6.15공동선언을 마련해주셔서 이런 경사가 생겼다. 우리 농민들도 이제 통일의 주인으로 성큼 나섰다고 생각하니 영도자님께 감사한 마음 그지없다. **김정일**영도자님이 아니셨다면 이런 경사를 생각이나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는 금강산 일만이천봉우리에 울려퍼진 통일함성은 통일의 태양이신 **김정일**영도자님을 따라 자주통일을 이룰 남북농민들의 뜨거운 열망의 분출이였다. 우리 모두 **김정일**영도자님이 계셔 통일은 반드시 온다는 확신안고 영도자님을 받들어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한 투쟁에 과감히 나서자 고해 동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민주노총은 22일 정부의 민주노총탄압중단을 촉구하는 노동자대회를 가졌습니다.

시민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미국산무기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장애가 된다고 보고 지난 2월부터 미국산무기도입중지 등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무기는 무려 89억 7천만달러인데 이는 해외로부터 들여오는 무기의 73%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일제침략의 상징인 서대문형무소에서 일본의 역사왜곡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학생들은 특히 조선일보 등 일제시대 한국언론이 일제의 정책을 앞장서서 선전한 기사와 잡지를 보며 울분을 터트렸습니다.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제주도지부와 4개 시군지부는 23일 일본은 과거 제국주의 망상을 버리기는커녕 역사교과서왜곡을 통해 군국주의를 부활하고 동아시아국가를 침략했던 역사로 회귀하려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는 22일 서울 태평로 조선일보사앞에서 조선일보구독반대 집회를 가졌습니다.
민주노총소속 노조원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회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노조원들이 조선일보구독거부운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소속사업장의 경영진을 상대로 조선일보에 광고를 싣지 말도록 촉구하고 조선일보의 편파왜곡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와 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28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3일 서울 프레스센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개혁은 중단없이 추진돼야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전국언론노조가 한국일보사의 직장폐쇄를 비난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불굴의 통일애국투사 비전향장기수 김영태씨에게 은정어린 생일 일흔돌상을 보내셨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조선민중과의 국제적연대월간에 즈음해 이북주재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이 23일 신천박물관을 참관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이북을 방문한 네팔왕국 국회대표단이 선물을 드렸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 조선민중과의 국제적연대성월간에 즈음해 페루 마그달레나델 마르시 이사회가 명예상장과 금메달을 수여해드렸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조선민중과의 국제적 연대성월간에 즈음해 페루 마그달레나델 마르시 이사회가 명예상장과 금메달을 수여해드렸습니다.

이라크 후세인대통령이 12일 TV이 방송연설에서 민족의 자유와 존엄을 끝까지 지킬것을 호소했습니다.

19일 독일외상이 자국신문 베르디넬르 브르겐 포스트지와의 회견에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창설시도를 비난했습니다.

19일 프랑스 경영자연맹이 ***관련한 ******연맹은 유럽나라 정부들이 미국의 참가없이도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주체 90, 7월 25일

금강산에서 진행된 남북농민통일대회에 참가했던 이모씨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라고 높이 칭송했습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2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뒷편에서 집회를 갖고 미국에서 진행된 일본군 위안부손해배상소송에 관한 정부의 조속한 입장표명을 촉구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 미군부대 캠프롱 기름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주한미군이 피해주민과 원주시민들에게 공식사과했습니다.
주한미군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대주변 농경지에 유출된 기름을 분석한 결과 미군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름과 성분이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은 피해주민과 원주시민들에게 사과한다면서 관련절차에 따라서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이 기름유출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한것은 피해주민들과 원주시민들의 강력한 항의와 투쟁의 결실인 것입니다.

민주사회를 변호사모임이 일본의 진보적 법률단체인 자유법조단과 공동으로 역사왜곡교과서채택거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는 24일 일본정부의 왜곡교과서 수정거부와 관련해 모임을 갖고 일본의 3천여개 지역 교육위원회에 왜곡교과서를 채택하지 말도록 요청하는 서신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회창을 민족의 통일지향에 역행하는 반민족, 반통일 분자로 지탄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6.15남북공동선언 1주년 공청회 발언을 비롯한 이회창의 최근 언동을 보면 너무하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건 여당흠집내기에만 한 한계 아니라 국민에 대한 도전행위이다. 자주, 평화, 공존, 통일을 향한 민족의 가슴에 칼을 박는 반역사적 행위이다. 그리고도 대권이라니 앙천대소할 일이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재야인사 김모씨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동물과 같다고 한 말은 이회창을 두고 한 말 같다면서 세상에서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은 도맡아 하는 이회창은 분명 6.15공동선언으로 타오른 겨레의 자주통일의지를 꺼보려는 악한이다. 이런 악한을 그대로 두고선 한반도에서 화해, 협력을 기대할수 없고 통일을 앞당길수 없다. 그러면서 그는 이회창은 이제 더이상 경고망동하지 말아야하며 각계민중은 히스테리 이회창타도에 더욱 과감히 나서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이모씨는 6.15공동선언으로 부푼 가슴 이회창의 악담으로 쓰리고 아플때마다 분노와 경악을 금할수 없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툭하면 퍼주기만 하고 받는 것이 없다, 뭐다하고 앙탈을 부리는 이회창이 과연 창피하지도 않는가. 우리도 재난을 당하고 불행에 올때 북에서 얼마나 진심으로 도와주었는가, 또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온 것은 우리 민족의 미덕이다. 남과 북이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자는 것은 6.15공동선언정신의 하나이기도 하다. 그런데 반북대결을 고착하며 냉전논리만 일삼고 있는 이회창이야말로 수전노, 민족의 숙적이다. 남북간의 대화, 화해, 협력, 통일을 빨리 이루기 위해서도 이회창을 징벌해야 한다.

참교육학부모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4일 서울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선일보가 참교육을 왜곡하고 사립학교법개정 등을 반대해왔다고 비난하고 올바른 교육개혁과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조선일보 구독중지운동을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업 나흘째를 맞은 한국일보사가 24일 조합원 27명을 해고해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재카나다조선인연합회 전순영회장이 주한미군철수를 요구해 6월 25일 미국대통령 부시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이북 외무성대변인은 휴전협정이 체결된지 48년이 되는 것과 관련해 24일 조선중앙통신사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6.25전쟁승리 48돌에 즈음해 이북주재 무관단이 24일 조국해방전쟁 사적지를 참관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만수대 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동상을 찾아 24일 국제건축가동맹대표단, 따쥐끼스탄 정부 여성위원회 대표단 등 7명이 경모의 정을 표시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서거 7주기에 즈음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마다가스까르투쟁연합당서기당, 인도공산당(마르크스주의) 인도공산당서기장, 팔레스타인 민족해방운동(*****)팔레스타인 민족해방운동에서 각각 전문을 드렸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서거 7주기에 즈음해 뻬루 노동자, 농민, 학생인민전선이 7일 공보를 발표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의 서거 7주기에 즈음해 우즈베키스탄 신문 **** 7일자가 민중의 힘에 의거하여 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습니다.

주체 90, 7월 26일

서울시 동작구에 사는 김수성주민이 **김정일**장군님을 사랑의 최고화신으로 높이 칭송했습니다.

6.25전쟁승리 48돌에 즈음해 한민전 평양대표부 박광기대표와 대표부성원들이 25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을 참관했습니다.

미사일방어체제저지와 평화실현공동대책위원회는 25일 파월의 방한과 관련해 미국의 엠디강요과 무기강매에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한미군이 국내기지를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대구시 남구 공덕동 캠프워커 에이3 비행장을 대구시 동구 케이2 비행장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해당지역 주민들과 기초의회가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 주한미8군기지일대에 지하수와 토양이 기름에 오염된 것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주한미군측에 의뢰해 지난 6월부터 지하철 녹사평역 부근 용산기지 지원부대인 ***포스턴의 주유소부근 13곳에 관정을 뚫어 조사한 결과 모두 9곳에서 유진이 나타났다는 통보를 최근 미군측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진이 발견된 곳은 녹사평역 방향 6곳과 한강방향 3곳입니다.
서울 녹사평역에서는 휘발유가 섞인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흘러나온 기름의 양은 2천리터에 이르고 있습니다.
녹사평역과 미군부대 담장과는 10미터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미군은 미군기지에서 기름이 흘러나오기 시작한지 7달이 지난 오늘에야 그 사실을 시인했을 뿐 아직까지 대책마련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회창 한나라당총재를 정계에서 퇴진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하고 있는 가운데 각계에서 이회창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의 한 인사는 이회창이 6.15남북공동선언을 반대하고 이의 이행을 방해하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단사상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것은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이다. 그런데 이회창이 공동선언을 악랄하게 비방하며 이행에 제동을 거는 것은 반민족적, 반통일적인 망동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우리 국민은 물론 전세계가 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있는데 유독 이회창 일당만이 반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민족반역의 무리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 보여줄 뿐이다.
이런 반통일분자가 대통령을 해보겠다고 꿈꾸고 있으니 어리석기 그지없다. 만일 그

가 대권을 장악한다면 6.15공동선언은 백지화되고 남북대결이 격화되어서 또다시 전쟁이 터질수 있다. 생각만해도 몸서리친다. 남북화해와 협력, 통일을 막아나서는 이회창은 정계에서 퇴진해야 한다.

한 언론인은 이회창이 조선일보사와 결탁해서 북을 비방중상하고 언론개혁을 반대하고 있는데 대해 비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회창집단이 언론개혁을 반대하고 나선것은 족벌언론, 특정언론의 지지를 받아 대권을 장악해보려는 속셈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민이 조선일보 구독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조선일보를 비호하고 나선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각계에서 이회창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문민독재자 김영삼과 결탁되어 있는 이회창은 매우 위험한 인물이다.

언론인들은 이회창을 사회적으로 매몰하기 위해 그의 비행을 낱낱이 폭로해야한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주5일근무제도입을 극력 반대하고 나선 것은 반노동자적인 작태라며 이회창반대운동을 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이회창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한다면 전체 노동자들이 반대표를 찍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수배를 당하고 있는 김모씨는 국가보안법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옥고를 치르고 수배를 받고 있다면서 국가보안법철폐를 한사코 반대하고 있는 이회창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그는 이회창과 같은 극우세력들이 있는한 자주통일은 물론 민주화실현도 계속 지연될 뿐이라면서 그를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주교와, 불교, 개신교, 원불교 등 4대종단이 언론개혁을 위한 종교인 천인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천주교의 김병상신부와 불교의 청하스님, 개신교의 문대걸목사, 원불교의 이종택교구등 25일 서울 프레스센타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대종단 1, 298명의 법종교인이 서명한 언론개혁선언문을 발표하고 비리언론사와 언론사주는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개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참교육학부모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4일 서울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선일보가 참교육을 왜곡하고 사립학교법개정 등을 반대해왔다고 지적하고 올바른 교육개혁과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조선일보 구독중지운동을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체 90, 7월 27일

각계에서 지난 6.25전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어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거만한 콧대를 꺾어버리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더욱 높아가고 있습니다.

각계에서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재난과 고통을 가져다준 6.25전쟁이 막을 내린 때로부터 48돌이 되는 것과 관련해 미국은 7.27패전에서 응분의 교훈을 찾고 이땅에서 침략무력을 걷어가지고 당장 물러가야한다고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이회창을 정계에서 퇴진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여론조사단체인 바른소리센타가 최근 각계각층 1, 350명을 대상으로 이회창 이대로 좋은가 라는 물음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데 따르면 92.5%가 그를 빨리 정계에서 퇴진시켜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써 그가 6.15남북공동선언을 반대하며 그 이행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놓으려 하고 있다는 것, 이른바 북에 퍼주기를 떠들며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반대하고 남북대결을 고취하면서 냉전논리만 펴고 있다는 것, 대통령병에 걸려 민생을 외면한채 정쟁만을 일삼고 있다는 것, 이런 자가 대권을 잡으면 한반도정세가 극도로 긴장해져 전쟁까지 다시 터질수 있고 우리 민족이 그 희생물이 될수 있다는 점들을 꼽았습니다.

지난 90년부터 미군부대 유류저장시설에서 일어난 기름유출사고가 19건에 이르고 그 가운데 절반이상이 지난해 이후에 일어나는 등 사고빈도가 점점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녹색연합은 지난 10년간 발생한 미군부대의 기름유출을 분석한 자료에서 지난 90년 4월에 일어난 충남 천안시 원성동 기름유출사고를 시작으로 매년 평균 2건꼴로 사고가 발생해 지금까지 모두 19건의 사고가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내역을 연도별로 보면 지난 90년 2건, 91년 1건, 94년에는 1건 등이었으나 지난해에는 무려 7건으로 늘었고 올해 들어서도 3건이나 발생해 사고빈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색연합은 미군에 의한 기름유출사고가 크게 늘면서 하천과 토양오염 등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히고 미군측의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조국해방전쟁승리 48돌에 즈음해 이북주재 무관단이 축하편지를 드렸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국제건축가동맹 위원장이 선물을 드렸다고 평양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영국 신공산당 따귀끼스딴 정부여성 및 가정위원회에서 선물을 보내왔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이북을 방문한 네팔왕국 국회대표단 단장이 귀국에 앞서 지난 23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드리는 편지가 인도 뉴델리에서 진행된 위대한 **김일성**주석 각하 회고모임에서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됐습니다.

여러나라 신문들이 6.25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어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빛나게 수호하고 세계평화와 안전에 크게 공헌하신 **김일성**주석님의 불멸의 업적을 널리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선민중과의 국제적 연대성월간에 즈음해 11일부터 16일까지 마다가스까르 노동투쟁당, 페루의 ***회관, 우간다 오읏드 캄팔라고등중학교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 캄팔라에 있는 우간다 역사박물관, 이집트 카이라 민족영화센타에서 집회,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전람회 개막식, 강연회, 영화감상회 등의 행사들이 진행됐습니다.

조선민중과의 국제적 연대성 월간에 즈음해 18일 방글라데시 노동당, 노동자, 농민사회주의당, 공산당, 사회주의당, 공산당(마르크스-레닌주의), 사회당, 인민연맹, 민주노동당, 조선친선협회, 농업노동자동맹, 주체사상연구소가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주체 90, 7월 28일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7월 24일 러시아 이따르타스통신사가 제기한 질문에 대답을 주셨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매향리미군국제폭격장폐쇄범국민대책위원회, 엠디저지공대위 등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앞에서 매향리폭격장 관리업체인 록히드마틴사에 대한 규탄집회를 갖고 매향리 미군폭격장폐쇄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포기를 촉구했습니다.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매향리 주민들은 지난 4월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해 미군폭격장폐쇄투쟁의 정당성을 확인한바 있음에도 미군이 최근 군사적 가치를 상실한 4천만평의 미군기지를 반환하고 도심의 금싸라기 땅 75만평을 요구하면서 매향리폭격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크게 분노하고 있다면서 미군과 록히드마틴사는 즉각 매향리폭격장을 폐쇄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범국민대책위원회 관계자 160여명 등 200

여명은 이날 결의대회를 마친뒤 폭격장폐쇄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미대사관측에 전달했습니다.
이어 미사일방어체제저지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 150여명은 이날 오후 용산 미8군 **보초소 앞에서 엠디저지와 평화실현저지대회를 갖고 미국은 한반도평화는 물론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엠디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일대 지하수기름오염사건과 관련해 기름의 출처가 미8군기지로 확인됐다면서 미군당국의 책임자처벌과 공식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녹색연합은 25일 성명을 통해 주한미군이 용산기지내 10여곳에서 시추작업을 벌인결과 여러 곳에서 지하 17미터까지 기름에 오염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이는 녹사평역에서 매일 유출되는 기름의 출처가 미군기지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색연합은 미군이 반환하는 땅이 이처럼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면 그 땅을 정화하기 위해 엄청난 돈이 들어갈수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반환받을 땅에 대한 환경오염내부를 진단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려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색연합은 또 미군기지내 지하유류탱크 선언및 지상화계획의 전면공개와 함께 반환예정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할것을 정부와 미군당국에 촉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주한미군은 기름오염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서울시는 민간합동조사반을 구성해 미군기지의 지하수오염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해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각계에서 반통일분자 이회창을 정치무대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려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재야통일운동단체의 한 인사는 최근 이회창이 6.15남북공동선언정신에 위배되는 언동을 거리낌없이 하고 있는데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회창은 부시행정부가 떠들고 있는 상호주의와 투명성보장 등을 되받아외우며 북을 심히 헐뜯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동족에 대해 주적이니 뭐니하는 입에 담지 못할 망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이회창의 이같은 망언은 남북대결을 고취하고 정세를 긴장시켜 좋게 발전하는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고 통일을 방해하려는 용납못할 책동이다. 이회창이야말로 반통일분자, 민족반역자이다.
이회창과 같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남북간의 화해와 단합, 통일이 쉽게 되지 않는 것이다. 민족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이 부시의 대북정책에 아부하고 추종하는 친미사대분자 이회창은 정치무대에서 아예 제거해버려야 한다.

김일성주석의 서거 7돐을 세계적판도에서 기념

(평양 7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한 없는 그리움을 안고 새 세기의 첫해 7월을 맞이한 세계진보적인류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 숭고한 경의와 최대의 영광을 드리면서 그이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였던 열대의 섬나라인 인도네시아의 붕카르노종합대학에서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 수카르노훈장을 수여해 드리였다.
수카르노교육재단 총재는 훈장을 수여하는 모임에서 **김일성**주석각하는 인류의 해방위업과 정의, 독립을 위하여 전 생애를 다 바치시였으며 거대한 업적을 쌓으신 세기의 위인이시라고 높이 칭송하였다.
캄보쟈국왕 노로돔 시하누크는 이 나라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 없는 경모의 정 어린 꽃바구니를 보내여 왔다.
마다가스까르사회주의진보당 전국위원장, 에티오피아의 기계공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나라 정당 지도자들과 정계 인사들은 우리 나라 대표부를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와 경애하는 장군님의 초상화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증정하고 경의를 표시하였다.
절세의 위인에 대한 그리움과 칭송의 목소리가 높아 가는 가운데 여러 나라들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회고위원회들이 결성되였다.
우간다, 민주꽁고, 가이아나, 기네, 나이제리아를 비롯한 세계 30여개 나라 70여개 정당 지도자들을 비롯한 정계, 사회계의 저명한 인사들로 조직된 회고위원회들은 회고기간을 정하고 다양한 행사들을 조직하였다.
방글라데슈로동당, 로므니아사회주의당, 마다가스까르독립대회당, 훌륭한 록색가이아나당을 비롯한 세계 30여개 정당들에서는 회고모임이 진행되였으며 모임들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편지들이 채택되였다.
중국, 로씨야, 네팔, 스위스, 수리아, 우크라이나, 핀란드, 뽈스까, 유고슬라비아, 끼르기즈스딴, 따쥐끼스딴, 메히꼬, 영국 등 세계 50여개 나라들에서는 업적토론회, 사진 및 도서전시회, 강연회, 문화의 밤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의 행사들이 진행되였다.
우간다 캄팔라고등중학교 교원들의 위대한 **김일성**주의연구소조, 기네 제레꼬레주 농촌건설기술사무소 주체사상연구소조, 마다가스까르의 **김정일**로작연구회와 종합대학 주체사상연구학회, 에짚트주체사상연구위원회, 나이제리아 아부쟈종합대학 주체철학연구소조, 기네주체문학사상연구회, 우간다의 챰보고공업대학 교원들의 주체사상연구소조와 마케레레종합대학 상업학부 주체사상연구소조, 캄팔라 키탄테인민학교 **김정일**학급, 탄자니아 해안주 키바하 **김정일**주의연구소조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연구토론회와 독보회가 진행되였다.
한편 세계의 광범한 출판보도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생애와 그이께서 이룩하신 업적을 대대적으로 소개선전하였다.
에티오피아신문 ≪메브리크≫와 ≪데일리 모니터≫, 우간다신문 ≪싼 라이즈≫, 기네신문 ≪호로야≫, 가이아나신문 ≪크로니클≫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를 모시고 그이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와 거기에 모셔 져 있는 친필명제들을 게재하였다.
로씨야신문들인 ≪자브뜨라≫, ≪쁘라우다 모스크비≫, ≪두엘≫, 벌가리아신문 ≪라보뜨니체스끼 베스뜨니크≫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50여개 나라의 최고훈장들을 비롯하여 세계 70여개 나라와 10여개 지역 및 국제기구들로부터 230여개의 각종 표창들을 받으시였다고 소개하면서 그이께서 서거 하신후 레바논사회진보당에서는 특별히 최고훈장을 제정하였는데 그 첫 수훈자가 바로 **김일성**주석이시라는데 대하여 대서특필하였다.
에짚트신문 ≪알 씨야씨≫, 파키스탄신문 ≪더 뉴스≫, 이란신문 ≪카이한 인터내슈널≫, 네팔신문 ≪데 우랄릴≫ 등 세계 여러 나라의 관록 있는 신문들은 ≪**김일성**주석의 존함은 자주시대와 더불어 영원히 빛날 것이다≫, ≪조선의 영원한 주석 **김일성**≫, ≪자주를 위한 인류의 위업≫, ≪걸출한 위인의 한생≫, ≪**김일성**주석은 영생하신다≫ 등의 제목들로 특집하였다.
캄보쟈 ≪에프엠 90≫방송과 기네라지오방송, 가이아나 국가라지오방송은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내보내면서 그이의 혁명활동략력을 소개하였으며 로씨야, 라오스, 나이제리아, 마다가스까르를 비롯한 수많은 나라 텔레비죤방송들은 우리 나라 영화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인류와 함께≫, ≪위대한 생애의 1994년≫ 등을 시청률이 제일 높은 시간에 특별방영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각하회고 가이아나위원회와 에짚트조선친선협회, 수리아주체사상연구쎈터, 뻬루조선친선문화협회에서는 뷸레찐특간호를 발행하였다.